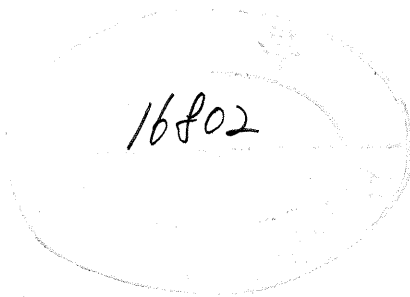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구 -

연구자 : 이 중 원(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요약

본 조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반적인 실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학업·학교생활, 교우·이성관계, 성별 특성·역할관, 일상활동·생활의식의 네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각국별로 1,000명 내외의 표본을 대상으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달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학교교육은 학업에만 편중되어 다른나라에 비해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클럽활동이 매우 취약하다. 학교생활에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청소년도 중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둘째, 학업과 관련한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현상인식은 중국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다. 기대교육수준이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현실여건을 감안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들은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특이한 개성이나 능력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우방식에 있어서도 친구와 강한 일체감을 느끼는 중국·미국 청소년들보다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일본 청소년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이성교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소극적이고 그 빈도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혼전순결 문제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매우 보수적인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적인 성별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청소년들은 전

통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관에 대하여 중국·미국 청소년들보다 강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한국·미국 청소년들은 중국·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인쇄매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컴퓨터·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국의 정보화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일본보다는 보수적이지만 중국보다는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부모·교사)에 반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미국보다도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여덟째,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자기자신 및 귀속집단(국가·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며, 현실에 도전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자아·귀속집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현실에 안주하고 경쟁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압축성장을 경험한 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편,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체제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실인식과 높은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차 례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4

II. 조사의 결과

1. 학업·학교생활..... 9
 - 가. 성적·희망학력..... 9
 - 나. 학교생활..... 14
 - 다. 교내 클럽활동..... 22
2. 교우·이성관계..... 25
 - 가. 선호 친구유형..... 25
 - 나. 교우방식..... 29
 - 다. 이성교제 경험..... 31
3. 성별 특성·역할관계..... 34
 - 가. 성별 특성 인식..... 34
 - 나. 성별 역할관..... 34
 - 다. 결혼관..... 48
4. 일상활동·생활의식..... 51
 - 가. 일상활동 빈도..... 51
 - 나. 문제행동 평가..... 58
 - 다. 자아·인생관..... 65
 - 라. 귀속집단 만족도..... 72

III. 요약 및 논의

1. 조사결과 요약..... 75
2. 논의와 토론..... 81

참고문헌..... 92

부록 1: 조사표..... 95

부록 2: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117

표 차 례

<표 I - 1> 조사의 내용	4
<표 I - 2> 조사의 시기 · 대상 · 인원	6
<표 I - 3> 표본의 특성	7
<표 II - 1> 학교성적(전 과목) 평가 : 성별	11
<표 II - 2> 과목별 성적 평가	11
<표 II - 3> 학교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때: 성별	17
<표 II - 4> 학급에서 인기 있는 친구	19
<표 II - 5> 활동중인 클럽의 종류: 성별	24
<표 II - 6>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	26
<표 II - 7>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한국): 성별	28
<표 II - 8>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 성별	32
<표 II - 9>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방법: 성별	33
<표 II - 10>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포: 성별	37
<표 II - 11> 전통적인 성별 역할관에 대한 태도: 긍정응답률	39
<표 II - 12> 성 귀속의식(“다시 태어난다면...”): 성별	41
<표 II - 13> “남자(여자)답게...” 지적받은 경험: 성별	42
<표 II - 14> 남성의 이미지: 응답률 상위 5개 항목	44
<표 II - 15> 여성의 이미지: 응답률 상위 5개 항목	45
<표 II - 16>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 성별	47
<표 II - 17> 남자들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47
<표 II - 18> 결혼관: 긍정응답률	50
<표 II - 19> 활동빈도: 교우 · 이성관련	52
<표 II - 20> 활동빈도: 매체관련 활동	55
<표 II - 21>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성별	58
<표 II - 22> 예절형 문제행동 평가	60
<표 II - 23> 반항형 문제행동 평가	61
<표 II - 24> 풍속형 문제행동 평가	64
<표 II - 25> 범죄형 문제행동 평가	65
<표 II - 26> 자아관 · 인생관의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표	68
<표 II - 27> 자아 · 인생관 척도점수 평균값	69
<표 II - 28>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성별	71

그림 차례

[그림 II- 1] 학교성적(전과목) 평가.....	10
[그림 II- 2] 기대교육수준.....	12
[그림 II- 3] 하루 평균 공부시간.....	14
[그림 II- 4] 학교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때.....	16
[그림 II- 5] 학교내 역할 성별 분포: 남학생이 맡고 있는 비율.....	21
[그림 II- 6] 클럽활동 참여여부.....	22
[그림 II- 7] 현재 활동중인 클럽의 종류.....	23
[그림 II- 8] 클럽활동 참여정도.....	24
[그림 II- 9] 친구와의 교우방식: 긍정응답률.....	30
[그림 II- 10]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	31
[그림 II- 11]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방법.....	32
[그림 II- 12]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	46
[그림 II- 13]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긍정응답률.....	35
[그림 II- 14]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포.....	36
[그림 II- 15]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	38
[그림 II- 16] 성 귀속의식(“다시 태어난다면...”).....	40
[그림 II- 17] “남자(여자)답게...” 지적받은 경험.....	42
[그림 II- 18]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48
[그림 II- 19] “결혼한다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다”.....	49
[그림 II- 20] 가족과의 대화빈도.....	53
[그림 II- 21] 일상활동 빈도: 일주일에 2~3번 이상 응답률.....	56
[그림 II- 22]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57
[그림 II- 23] 반항형 문제행동 평가: “좋지 못한 행동이다”.....	62
[그림 II- 24] 자아관·인생관: 긍정응답률.....	67
[그림 II- 25]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1
[그림 II- 26] 자기 부모 만족도.....	72
[그림 II- 27] 자국 국민으로서의 만족도.....	73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본 조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반적인 실태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일본청소년연구소에 의해서 기획되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공동연구기관으로서 한국에서의 조사수행과 조사결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본청소년연구소에서 개발한 조사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전국 고교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1,000명 내외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완료 후 수합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와 조사결과 분석은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국제비교 설문조사는 다른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별연구자나 기관 차원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청소년대상의 국제비교 조사는 양적으로 드물뿐더러 조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소규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연구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왔다. 이번이 그 네번째 연구성과로서 다른 해외는 달리 조사대상을 고교생으로 한정하였고,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청소년 생활·의식 전반을 주제로 한 점이 특징적이다¹.

¹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청소년 국제비교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다 :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 연구(1997),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중국·일본·미국 청소년의 비교(1999), 새천년 청소년 의식의

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외국의 청소년 국제비교 조사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다른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이것은 조사대상 국가의 선정이 자국과 인접해 있거나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의 “세계 청년 의식조사”는 지금까지 30여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국제비교 조사로서, 한국은 1988년(제3회 조사)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되었다². 또한 이번 조사의 주관기관인 일본청소년연구소는 주로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포함된 조사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달한다³. 이밖에 주기적으로 국제비교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베네체교육연구소⁴ 등이 있고 개별 연구자 차원의 조사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청소년 국제비교 조사는 양적으로 풍부할 뿐 아니라 반복 조사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생활·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⁵.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

국제비교- 한국·미국·일본·프랑스 청소년의 비교(2000).

² “세계 청년 의식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여개국의 청소년(18~24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 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국제비교 조사이다. 일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추진하여 오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03년부터는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1998년에 제6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제5회, 제6회의 조사결과의 내용은 이종원(1994), 이종원(2000)을 참조할 것.

³ 일본청소년연구소에서 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포함하여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中学生の生活調査(1991), 中学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1998), 21世紀の夢に関する調査(1999), 中学生・高校生の日常生活に関する調査(2000), 新千年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2001), 高校生の未来意識に関する調査(2002).

⁴ 대표적인 조사결과로는 “都市社会の子どもたち”(3회 실시), “家族の中の子どもたち”(1994)조사 등이 있다.

⁵ 국내외에서 시행된 청소년국제비교 조사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글로는 이종원(2003)을 참조할 것.

제적 발전단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비교조사의 대상이 된 네 나라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 각국의 독특한 특성과 더불어 구조적인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문화적 전통에서는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3국과 서구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미국으로 나뉘지만, 현대 대중문화의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시장경제 초입단계의 중국과 성숙된 시장경제사회인 미국·일본, 중간적인 입장의 한국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정치이념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민주주의의 한·미·일 3국이 대비되고 있다.

동아시아 3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공통성과 특수성이 공존하고 있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떤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조사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아울러 각국 청소년들과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생활·의식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후속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본 조사는 각국 청소년들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전반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고교생 연령층의 생활영역·성장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 교우·이성관계, 성 의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다루게 될 조사영역은 학업·학교생활, 교우·이성관계, 성별 특성·역할관, 일상활동·생활의식의 네가지이고, 각 조사영역은 다시 3~4가지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조사항목은 모두 26개(세부항목 110개)이다.

<표 I - 1> 조사의 내용

조사영역	세부영역
학업·학교생활	성적·희망학력
	학교생활 전반
	교내 클럽활동
교우·이성관계	선호 친구유형
	교우방식
	이성교제 경험
성별 특성·역할관	성별 역할관
	성별 특성 인식
	결혼관
일상활동·생활의식	일상활동 빈도
	문제행동 평가
	자아관·인생관
	생활전반 만족도

한편, 본 조사에서는 지난해 일본청소년연구소에서 일본·중국·미국의 3개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고교생 미래의식에 관한 조사”의 일부 항목(6항목, 세부 12항목)을 조사표에 포함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통계표를 제시할 때 그 하단에 출처를 별도로 명기하였다⁶.

조사의 표본은 각국별로 도시규모·행정구역을 고려하여 6~10곳의 조사지점을 선정한 뒤 모집단의 인구구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배정하는 비례 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0개 조사지점에서 각각 1~5개 학교를 선정하여 모두 16개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관은 한국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담당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일본청소년연구소, 미국은 일본청소년연구소의 의뢰하에 현지 조사기관이 담당하였다.

조사의 방식은 각국의 연구진 또는 지도요령을 사전에 숙지한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인원은 각국별로 1,000~1,300여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자료선별 및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이 된 유효표집 인원은 800~1,307명이었다⁷.

각국별로 실시된 조사의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의 <표 I-2>와 같다.

⁶ 日本青少年研究所의 “高校生未来意識に関する調査”는 일본·미국·중국의 고교생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로서 2002년 5월에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조사문항의 일부를 이번 한국의 조사표에 포함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표의 하단에 “자료: 日本青少年研究所(1992)”로 표기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세나라는 2002년의 조사결과로서 한국과 1년여의 시차가 있지만, 조사·표집방법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⁷ 유효표집 인원의 선별작업은 각국의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최종 분석인원의 성별 조정을 위해 일본의 여자 표본, 한국의 남자 표본의 일부를 확률추출 방법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 표본의 수에서 각국의 연구진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통계수치도 다소간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표 I - 2> 조사 실시 개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조사시기	2003. 9~10	2003. 10	2003. 10~11	2003. 9~10
대상학교	16개교	14개교	12개교	12개교
유효표집	970명	1,307명	800명	1,123명
조사지점	10개 시·군	7개시	9개 都道県	6개주
조사지점 내역				
한국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부여, 금산, 하남, 부천, 여주			
중국	北京市, 上海市, 哈爾濱市, 西安市, 広州市, 南充市, 武漢市			
일본	東京都, 北海道, 青森県, 栃木県, 宮崎県, 静岡県, 山梨県, 福岡県, 鹿児島県			
미국	New York, Missouri, North Carolina, Oklahoma, Texas, Montana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각국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당초 표집계획상으로는 남녀 동일한 비율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유효표집 인원에서는 네 나라 모두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많은 편이다. 표본 중 여자의 비율이 한국이 가장 낮고(52.0%) 일본이 가장 높았다(56.0%).

학교계열별로는 한국의 경우 일반계가 75%, 실업계가 25% 수준으로서 실제 모집단의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일본의 학교계열별 구성은 한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거의 전체 표본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속하였다.

공·사립 구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은 공립과 사립이 대략 8:2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은 거의 전체 표본이 공립학교에 해당하였다.

학년구성에서는 중국·일본·미국은 학년별 인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은 조사가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져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적었다. 이에 따라 표본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가장 어릴 것으로 추정된다.

학급의 성별구성은 남녀가 같은 반에 편성된 혼성학급이 한국은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중국·미국은 표본의 대다수가 혼성학급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양국의 실제 모집단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 - 3> 표본의 특성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표본 수(명)		970	1,307	800	1,123
성별	남자	48.0	45.8	44.0	47.7
	여자	52.0	54.2	56.0	52.3
학교계열	일반계	75.4	77.6	65.3	99.0
	실업계	24.6	22.4	34.8	1.0
공사립 구분	국공립	79.4	98.8	90.8	76.6
	사립	20.6	1.2	9.3	23.4
학년	1학년	39.5	32.7	31.0	40.5
	2학년	45.9	33.7	36.3	30.4
	3학년	14.6	33.7	32.8	29.1
학급편성 (남녀)	혼성학급	27.5	87.1	66.7	92.5
	분리학급	72.5	12.9	33.3	7.5

II. 조사의 결과

1. 학업 · 학교생활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생활 영역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로 진입하는 청소년기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둔 각국 고교생들의 학업관과 학교생활 전반의 주요내용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 성적 · 희망학력

학교성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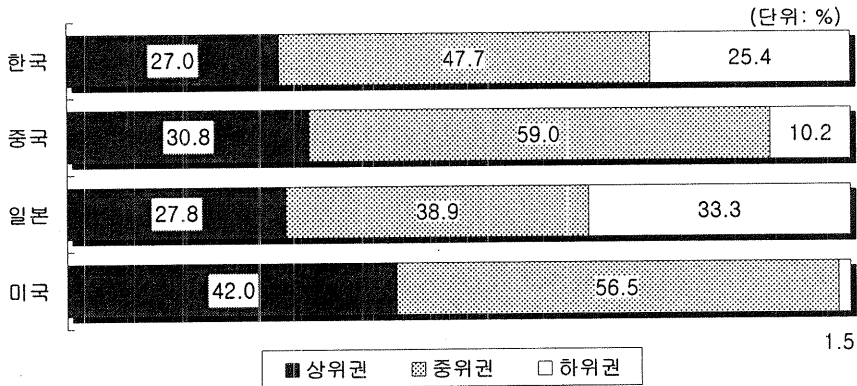
자신의 학업성적을 학급을 단위로 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전 과목 평균성적 및 과목별(국어, 수학, 외국어) 평균성적을 상위권 · 중상위권, 중간수준, 중하위권 · 하위권(이하, 본문에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표기)의 3단계로 나누어 자신이 대략 어디에 속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전 과목 평균성적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위권이 전체의 절반 가량(47.7%)으로서 가장 많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모두 1/4남짓한 수준이었다. 중위권이 가장 많은 것은 모든 나라에 공통된 특징이었지만, 상/하위권의 비율에서는 나라별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상/하위권의 비율이 유사한 반면, 중국과 미국은 상위권의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하위권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상위권과 중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실제 성적 분포에 가까운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미국·중국은 실제보다 자신의 성적을 높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응답경향을 나타내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⁸.

[그림 II-1] 학교성적(전 과목) 평가



전 과목 성적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한국의 경우, 상위권의 응답률은 남녀가 비슷하였으나 중위권은 여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성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한국과 같이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성적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미국은 상위권 응답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평가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⁸ 성적평가에 있어서 한국·일본과 미국 청소년들의 대조적인 응답경향은 1990년에 3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미국 중학생들 중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8%에 불과하여 한국(19.5%), 일본(34.9%)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日本青少年研究所, 1991: 45).

<표 II-1> 학교성적(전 과목) 평가 :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상위권	26.3	27.5	31.4	30.3	24.2	30.8	46.9	37.6
중위권	43.8	51.2	56.7	60.9	39.0	38.7	51.4	61.1
하위권	29.8	21.3	12.0	8.8	36.8	30.5	1.7	1.2

다음으로 국어, 외국어, 수학의 과목별 성적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의 전 과목 성적에 대한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3과목 모두 중국·미국 청소년들이 한국·일본보다 자신의 성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3국의 과목별 성적 분포에서 특이한 사항은 다른 과목들이 모두 중위권이 비대한 정상분포를 나타낸 반면, 수학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하위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⁹. 이것은 한국·일본 청소년들이 특히 수학 과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나라에 비해 양국의 수학교육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 과목별 성적 평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국어	상위권	29.7	34.9	29.6	42.2
	중위권	41.3	46.1	27.5	50.1
외국어	상위권	28.8	32.8	22.4	36.1
	중위권	41.3	24.7	45.8	7.6
수학	상위권	25.1	29.2	26.6	42.2
	중위권	33.6	46.1	27.5	50.1
	하위권	41.3	24.7	45.8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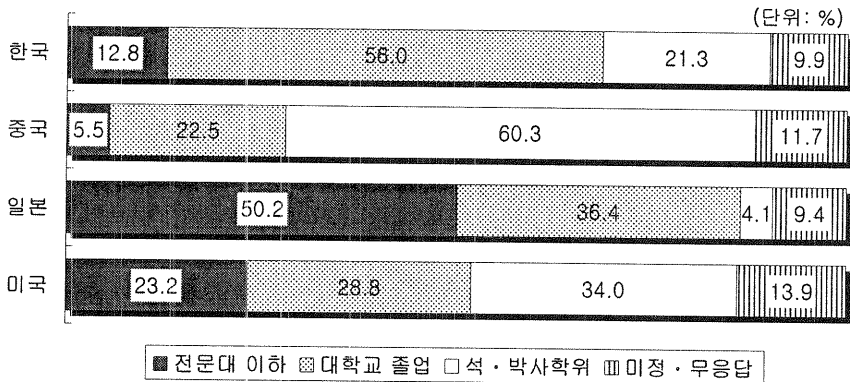
주: 국어, 외국어의 중위권, 하위권 응답률은 표에서 생략

⁹ 과목별 성적평가에 있어서도 미국은 동아시아 3국과는 달리 모든 과목에 걸쳐 하위권은 극소수이고 중·상위권에 편중된 비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대교육수준

현재 자신이 희망하는 최종학력이 어느 단계까지 인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많았고(56.0%), 다음으로 석·박사학위 취득(21.3%), 전문대 이하(고졸·전문대졸; 12.8%)의 순이었다. 중국은 석·박사학위 취득이 6할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절반 정도가 전문대 이하라고 응답하여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이 석·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다수였지만, 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동아시아 3국과 같은 특정 학력단계의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 2] 기대교육수준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동아시아 3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¹⁰. 이것은 현재 한·중·일 3개국이 상이한

¹⁰ 동아시아 3국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의 차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일본 베네체교육연구소가 각국 초등학교(5학년)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졸이 최종 희망학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일본은 33.7%에 달하는 반면, 한국·중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2.7%, 4.7%). 또한 명문대 진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서 차지하는 교육(학력)변인의 역할과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은 자국사회의 현실여건보다는 그들의 희망과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한국 고교생의 약 8할이 대학교(4년제) 진학을 원하는 반면, 일본은 4할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청소년 모두 대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을 겪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한국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공부시간

각국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 하루 평균 몇시간 정도 공부(학원·개인과의 포함)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이 28.9%에 머물러 7할 이상이 매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은 일본이 과반수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한국과 미국(26.9%)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중국은 4.1%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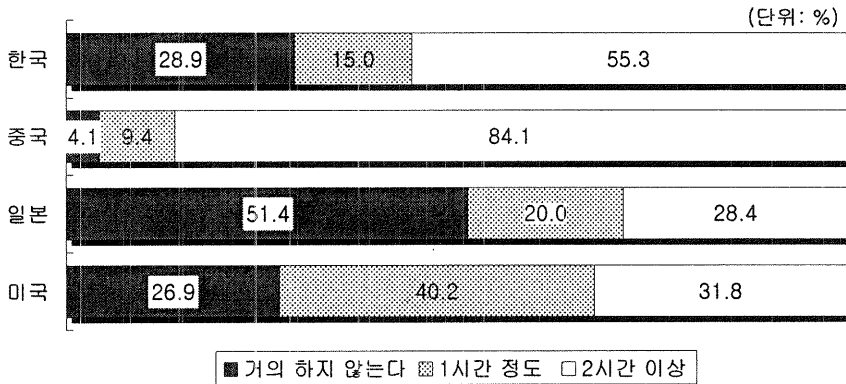
하루에 2시간 또는 그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각국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이 가장 길었고(84.1%), 그 다음이 한국이며(55.3%), 미국·일본(31.8%, 28.4%)은 한·중 양국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한국·중국은 7할을 넘지만(70.0%, 78.5%), 일본은 17.9%에 머물렀다(ベネッセ教育研究所, 2000)

¹¹ 이와 같은 한국·미국·일본 청소년들의 하루 공부시간의 차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본 청소년대책본부(1996)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7~15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을 조사한 결과,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이 31.5%로서 가장 높았고, 미국이

동아시아 3국의 경우, 앞서 기대교육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와 하루 평균 공부시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일수록 청소년들이 더욱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하루 평균 공부시간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주: 9단계의 응답항목을 3단계로 재정리(무응답은 그림에서 제외)

나. 학교생활

학교생활의 보람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8가지의 사례항목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각국에서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응답률이 높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0%였으며, 일본이 7.4%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의 공부량도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青少年対策本部,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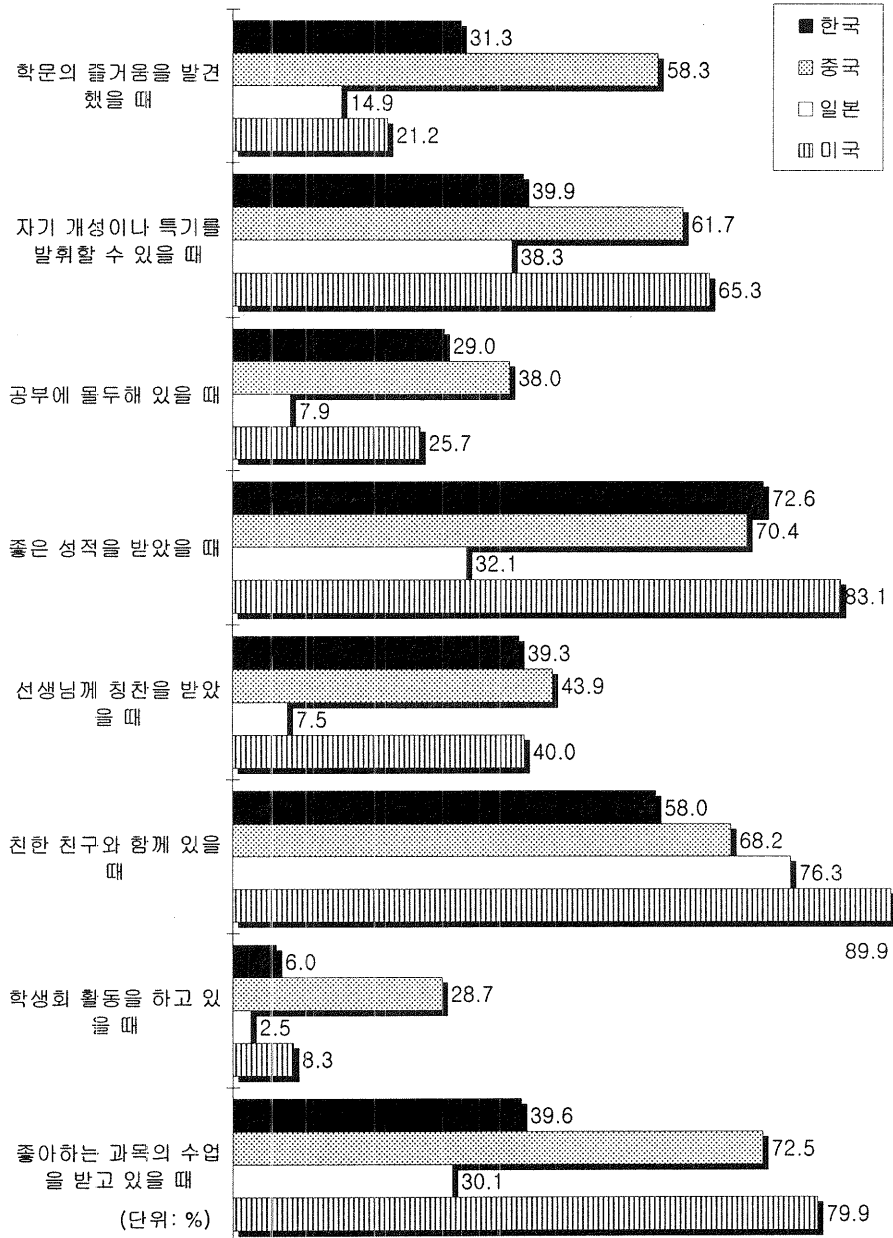
한국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72.6%)와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58.0%)의 두가지만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항목들의 응답률은 모두 4할 미만으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고교생들에게는 학교 성적과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학교생활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응답항목이 모두 5가지에 달하였다.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72.5%), 이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70.4%),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68.2%), “자기 개성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61.7%), “학문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58.3%)의 순이었다. 일본은 응답률이 과반수에 달하는 항목이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76.3%)의 하나뿐으로서 조사대상 국가들 중 가장 적었다. 미국은 네 항목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는데,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89.9%)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83.1%),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79.9%), “자기 개성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65.3%)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중국(“학생회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공부에 몰두해 있을 때” “학문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과 미국(“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자기 개성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이 각각 네 항목에 걸쳐 조사대상 국가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이 전무하였다.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유형화해보면,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다. 한국은 좋은 성적과 친구, 일본은 친구만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학문의 즐거움, 개성·특기 발휘 등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4] 학교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때



주: 복수응답 항목임

같은 문항의 성별 응답결과를 각국별로 비교하면 <표 II-3>과 같다.

한국은 모든 항목에 걸쳐 여자의 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았고, 특히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을 때” “공부에 몰두할 때”의 세 항목에서 남녀간의 응답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모든 항목에 걸쳐 남녀간의 응답률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유사하게 남자보다는 여자의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미국은 모든 항목에 걸쳐 여자의 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도 매우 현격한 수준이었다.

학교생활의 만족과 보람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응답률이 높은 한국·일본·미국과 남녀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중국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I-3> 학교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때: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	38.5	40.7	71.9	73.1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5.0	7.0	28.1	29.2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51.7	63.7	68.7	67.7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34.6	43.7	42.8	44.9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69.8	75.2	70.9	70.0
공부에 몰두해 있을 때	25.0	32.7	37.1	38.8
자기 개성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	38.3	41.5	62.7	60.9
학문(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28.5	33.9	58.4	58.2

주: 복수응답 항목임. 일본·미국의 조사결과는 표에서 생략

학급에서 인기있는 친구

현재 청소년들이 재학중인 학급에서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모두 15가지 유형의 성격·행동 특성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항목

들을 선택하게 하였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세 항목과 가장 낮은 세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응답률이 높은 세 항목은 “농담을 잘 한다”(65.2%), “적극적이다”(58.8%), “개성적이다”(45.9%)였고, 반면에 “선생님께 반항한다”(4.7%),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는다”(4.6%), “몰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3.5%)의 응답률은 1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은 “농담을 잘 한다”(80.1%)의 응답률이 단연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서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53.6%), “약한 아이를 도와준다”(49.0%)의 순이었으며, “자기세계에만 몰입한다”(6.0%)와 “선생님께 반항한다”(5.2%), “몰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4.2%)의 응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은 “농담을 잘 한다”(52.4%), “개성적이다”(48.4%), “상냥하다”(44.8%)의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선생님께 반항한다”(6.3%), “몰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5.0%), “자기세계에만 몰입한다”(4.1%)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미국도 역시 “농담을 잘 한다”(77.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행에 민감하다”(70.9%), “운동을 잘 한다”(67.6%)의 순이었으며, “정의감이 강하다”(15.1%), “약한 아이를 도와준다”(14.4%), “자기세계에만 몰입한다”(4.4%)를 선택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모든 나라에서 농담을 잘 하는 청소년이 학급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지만, 두번째로 인기 있는 유형은 각국마다 상이하였다. 한국은 적극적인 성격이 인기가 있는 반면, 중국은 자기주장이 강한 청소년, 일본은 개성적인 청소년, 미국은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률이 낮은 항목들은 동아시아 3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동아시아 3국이 공통적으로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은밀한 문제행동의 응답률이 낮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정의감이 강하다” “약한 아이를 도와준다”와 같은 도덕적·윤리적인 성격특성의 응답률이 낮았다. 이것은 동아시아 3국은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또래집단의 인기를 얻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미국은 도덕성과는 무관한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적인 예로 교사에게 반항하거나 몰래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인기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미국은 모두 2할 수준에 달하여 응답률이 6% 안팎인 동아시아 3국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표 II- 4> 학급에서 인기 있는 친구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농담을 잘 한다	65.2	80.1	52.4	77.6
공부를 잘 한다	22.2	47.1	17.9	32.0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	26.8	53.6	32.4	48.2
적극적이다	58.8	45.2	35.8	19.3
정의감이 강하다	20.9	35.5	12.6	15.1
상냥하다	30.8	43.1	44.8	22.5
약한 아이를 도와준다	13.0	49.0	11.7	14.4
운동을 잘 한다	21.9	29.3	21.5	67.6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는다	4.6	18.2	7.4	37.0
개성적이다	45.9	37.5	48.4	49.4
힘이 세다	11.1	10.2	6.7	40.6
자기세계에만 몰입한다	6.0	6.0	4.1	4.4
몰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	3.5	4.2	5.0	17.8
선생님께 반항한다	4.7	5.2	6.3	20.9
유행에 민감하다	10.6	11.5	17.4	70.9

주: 복수응답 항목임

다음으로 한국과 다른나라의 응답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국가들 중 한국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항목(즉, 또래집단내에서 인기가 낮은 성격·행동특성)은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와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는다” “유행에 민감하다”의 세 항목이었고, “공부를 잘 한다” “운동을 잘 한다”의 응답률도 중국·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에 있어 남과는 다른 독특한 개성이나 뛰어

난 능력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내 역할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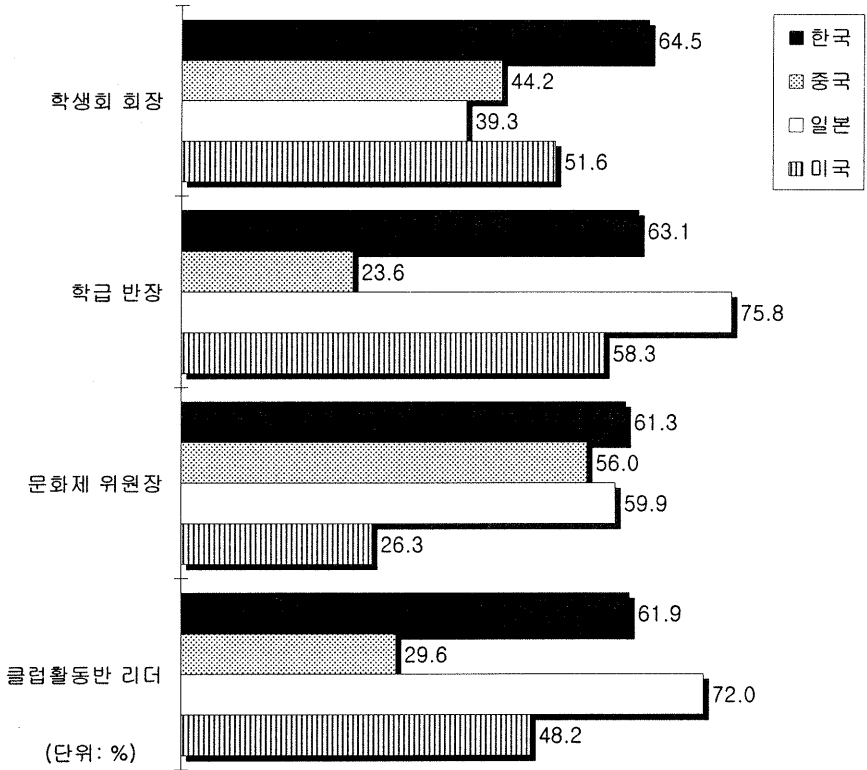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자기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 중 어느쪽이 담당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문항의 성격상 남녀 공학·혼성학급에 재학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회 회장, 문화제(축제) 실행위원장, 학급 반장, 자신의 클럽활동반 리더의 네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네가지 역할 모두 남학생이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특히 학생회 회장을 남학생이 맡고 있다는 경우가 64.5%로서 가장 많았다. 중국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제 실행위원장을 제외한 세가지 역할을 여학생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학급반장, 클럽활동 리더의 경우 여학생이 맡고 있다는 응답률이 7할에 달하였다. 일본은 학생회 회장을 제외한 세가지 역할 모두 남학생이 맡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특히 학급반장과 특별활동 리더는 대다수가 남학생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은 학생회 회장과 클럽활동 리더는 남녀가 거의 동등한 비율이었으며, 문화제 실행위원장은 여학생이 맡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고, 학급반장은 남학생이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학교·학급내 역할의 성별 분포에서 한국과 일본은 남학생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미국은 남녀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중국은 여학생의 담당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학급내 역할의 성별 분포는 남녀의 역할관계와 관련한 각국의 관행과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이 학교사회내의 불평등한 양성관계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권·남성 위주의 유교적 문화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림 II-5] 학교내 역할 성별 분포: 남학생이 맡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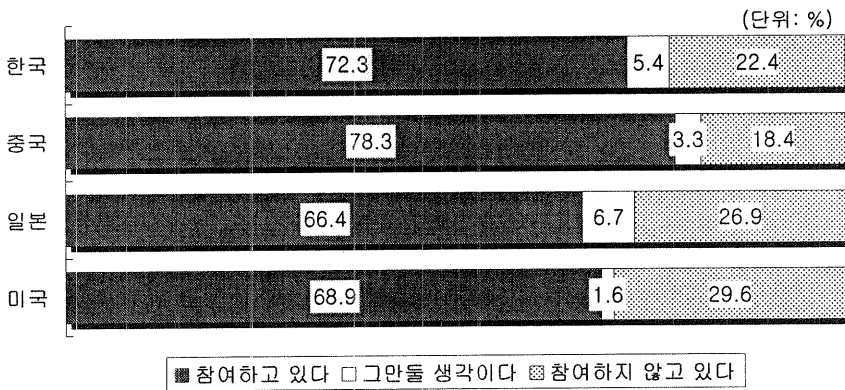


다. 교내 클럽활동

학교 클럽활동은 지식교육 위주의 학과수업을 보완하여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각국 청소년들의 교내 클럽활동 참여율을 비교하면 [그림 II-6]과 같다. 한국의 경우 전체의 7할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참여하고 있지만 그만 두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5.4%,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22.4% 남짓하였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클럽활동 참여율은 중국(78.3%) 다음으로서 미국·일본(68.9%, 66.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클럽활동 참여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정규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6] 클럽활동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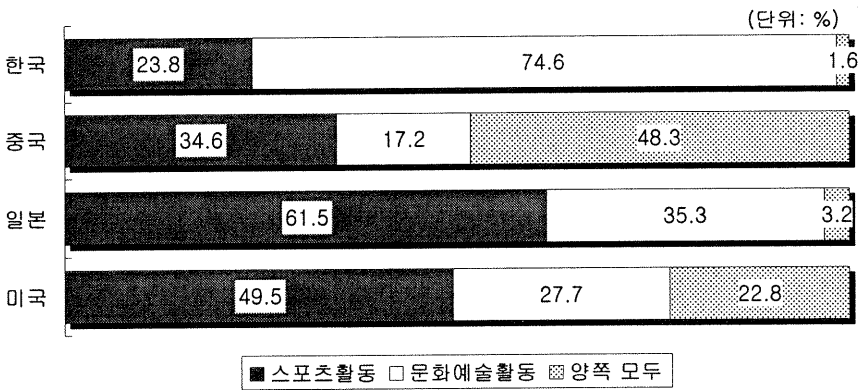


현재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포츠활동과 문화예술활동(학술/문화/예술/취미 등)의 두 종류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74.6%로서 스포츠활동 참여율(23.8%)의 세배 이상이었다. 반면에 다른나라는 모두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문화예술활동 참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중국·미국은 두가지 활동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청

소년이 상당수에 달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클럽활동이 비스포츠계 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두가지 이상의 활동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고교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과공부로만 평가하는 대학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7] 활동중인 클럽의 종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클럽활동 종류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II-5>과 같다. 모든 나라에서 여자의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남자보다 낮은 편이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활동보다는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여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14.0%에 머문 반면, 일본과 미국은 모두 4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7%, 42.5%). 한국 고교생들의 클럽활동이 비스포츠계열의 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편중현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II-5> 활동중인 클럽의 종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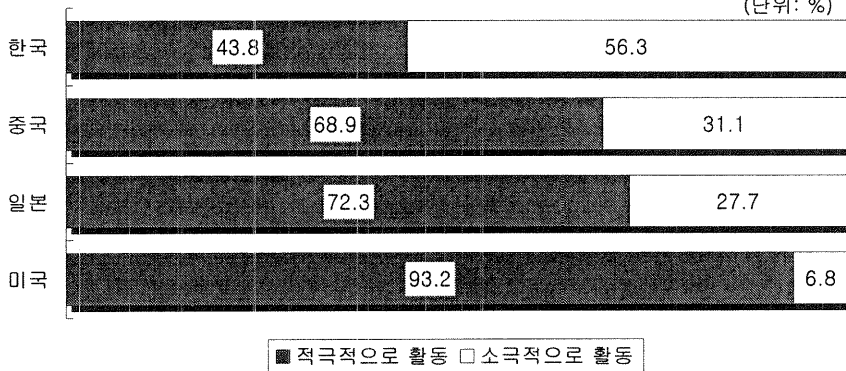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스포츠활동	33.6	14.0	40.1	29.8	84.6	41.7	57.5	42.5
문화예술활동	64.1	85.2	11.8	21.8	12.0	55.3	21.9	32.8
양쪽 모두	2.3	0.9	48.1	48.4	3.5	3.0	20.6	24.7

현재 클럽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의 정도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43.8%에 불과한 반면, 다른나라는 모두 6할 이상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미국은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여(93.2%) 조사대상 국가들 중 클럽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클럽활동 참여정도는 유사한 교육환경의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II-8] 클럽활동 참여정도

(단위: %)



2. 교우 · 이성관계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는 가정 이외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정 · 부모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반면, 친구 ·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장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와 이성교제 경험을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하여 비교 · 검토하기로 한다. 조사문항의 구성은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 학급에서 인기 있는 친구, 친구와 사귀는 방식,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과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선호 친구유형

각국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8가지 항목의 성격 · 행동 특성을 제시하고,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과 쉽게 사귄 수 있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각 나라별로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하여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세 항목과 가장 낮은 세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78.6%)의 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서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66.8%),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66.4%)의 순이었고, 반면에 “정의감이 있는 사람”(27.6%), “공부를 잘하는 사람”(13.2%), “유행에 민감한 사람”(11.1%)의 응답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은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68.8%),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67.8%), “믿을 수 있는 사람”(62.6%)의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고,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22.4%),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21.7%), “자신

의 투정을 잘 받아 주는 사람”(15.7%)의 응답률이 하위권이었다.

일본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64.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63.6%),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59.2%)의 순이었으며, “자신의 투정을 잘 받아 주는 사람”(12.8%), “성실한 사람”(11.2%), “공부를 잘하는 사람”(10.8%)의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농담을 잘 하는 사람”(80.0%),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76.8%), “믿을 수 있는 사람”(75.4%)이었으며, 반면에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36.1%), “유행에 민감한 사람”(34.6%), “성실한 사람”(24.4%)의 응답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6>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28.5	50.5	40.5	57.8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63.7	58.8	59.2	76.8
공부를 잘하는 사람	13.2	38.4	10.8	40.6
개성이 있는 사람	30.3	47.9	45.6	61.3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62.9	67.8	64.4	71.2
상냥하게 대해 주는 사람	54.1	52.0	52.6	61.6
농담을 잘 하는 사람	49.6	56.6	57.3	80.0
믿을 수 있는 사람	78.6	62.6	56.9	75.4
유행에 민감한 사람	11.1	22.8	24.4	34.6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66.8	68.8	63.6	74.7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66.4	22.4	42.7	72.2
다른사람을 잘 보살피 주는 사람	37.5	48.1	25.8	57.4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	28.0	21.7	20.6	36.1
정의감이 있는 사람	27.6	50.6	17.8	43.4
책임감이 강한 사람	40.1	54.4	25.9	70.6
자신의 투정을 잘 받아 주는 사람	31.0	15.7	12.8	40.0
노력하는 사람	35.6	35.2	26.5	48.8
성실한 사람	40.2	44.6	11.2	24.4

주 : 복수응답 항목임

각국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친구유형이, 한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중국과 일본은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 미국은 “농담을 잘 하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른나라 청소년들이 주로 부담없이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신뢰감이라는 덕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성실한 사람”의 응답률이 미국·일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친구의 요건으로서 덕목 못지 않게 “재미”를 중시하는 선진국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일본은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과열된 입시경쟁에 따른 양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다른나라, 특히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일본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는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 “자신의 투정을 잘 받아주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네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모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다른나라에 비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개성이 있는 사람” “농담을 잘 하는 사람” “유행에 민감한 사람”의 다섯 항목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목의 공통된 특성은 강한 개성 또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종합해 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특이한 능력이나 개성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친구로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보다는 집단, 개성보다는 적응과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한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친구유형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이 성별 응답결과는 <표 II-7>

과 같다. 조사대상이 된 18가지 성격·행동특성 중에서 남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유행에 민감한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반면, 여자의 응답률이 두드러진 항목은 “상냥하게 대해 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의 다섯가지였다.

<표 II- 7> 선호하는 친구의 유형(한국): 성별

(단위: %)

	남자	여자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31.8	25.4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61.7	65.6
공부를 잘하는 사람	15.9	10.7
개성이 있는 사람	31.0	29.6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64.5	61.4
상냥하게 대해 주는 사람	52.0	56.1
농담을 잘 하는 사람	49.7	49.5
믿을 수 있는 사람	73.5	83.3
유행에 민감한 사람	14.2	8.2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61.9	71.4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61.7	70.8
다른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	36.8	38.2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	25.4	30.4
정의감이 있는 사람	29.9	25.4
책임감이 강한 사람	38.7	41.4
자신의 투정을 잘 받아 주는 사람	29.2	32.6
노력하는 사람	35.3	36.0
성실한 사람	42.2	38.4

주: 복수응답 항목임

성별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나 그 자질을 갖춘 친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

집을 알 수 있다. 한국 여학생들의 이와 같은 특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일본 여학생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반면에,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 응답결과에서 어떤 일관된 특징이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나. 교우방식

각국 청소년들의 교우방식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친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지 않게 행동한다”에 대해서는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이 모두 7할을 상회하여(80.8%, 75.2%), 중국·미국(29.8%, 51.9%)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을 의식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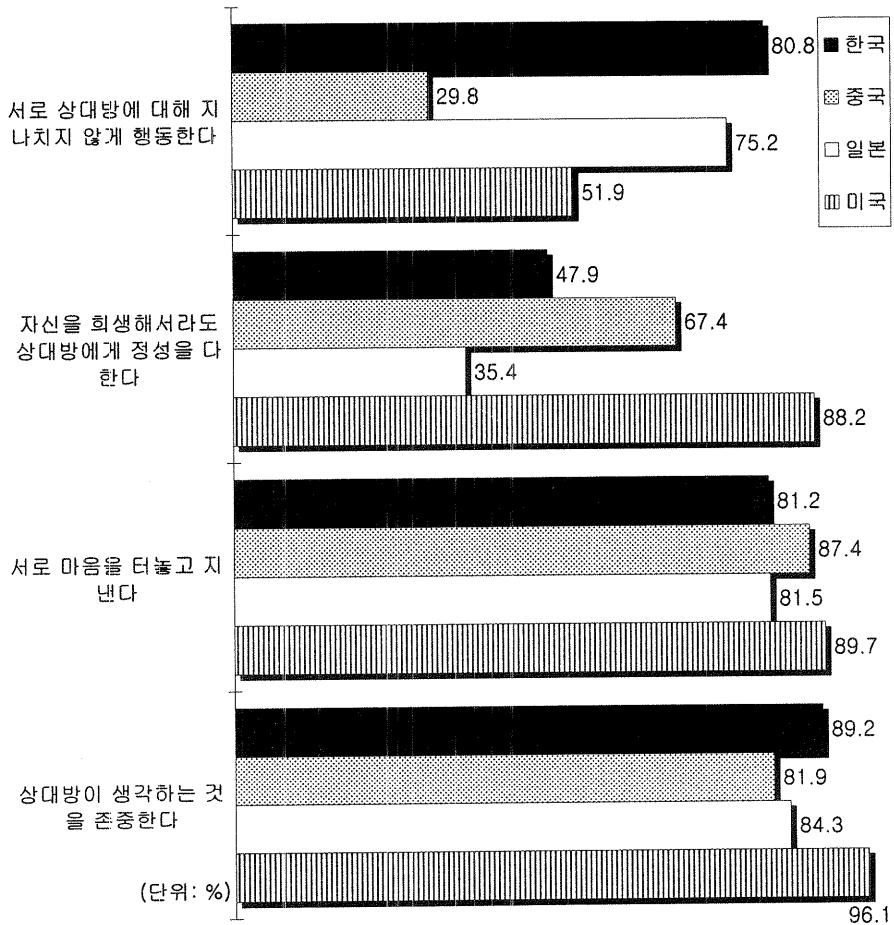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한다”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88.2%, 87.4%), 한·일 양국의 긍정응답률은 절반에도 못미쳤다(47.9%, 35.4%).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낸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미국·중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89.7%, 87.4%)이 일본·한국(81.5%, 8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일본과 비교할 때 중국·미국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격의 없는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존중한다”에 대해서는 미국의 긍정응답률이 96.1%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 3국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방식과 관련된 이상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려는 반면, 중국·미국은 격의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친구를 위해 정성을 다

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가까운 친구와도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한국·일본에 비해, 중국·미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서는 친구와의 강한 정신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Ⅱ-9] 친구와의 교우방식: 긍정응답률



주: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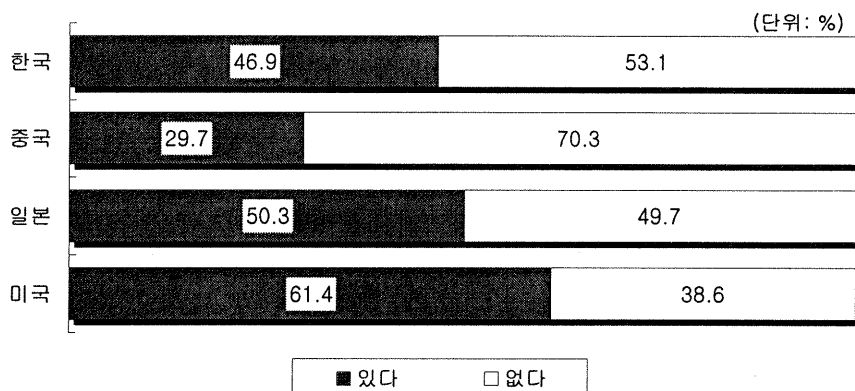
다. 이성교제 경험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

10대 후반인 고교생 시절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이성교제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61.4%), 일본과 한국의 경험자가 절반 가량으로서 유사하였으며(50.3%, 46.9%), 중국이 3할 미만으로서 가장 적었다. 경험자 비율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일본의 차이보다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의 차이가 더욱 현저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사회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양성관계의 평등의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보다 앞서 있지만,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 10]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



같은 문항에 대한 각국의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19>와 같다. 한국·미국은 고백 경험자의 비율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은 남자, 일본은 여자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성애에 대한 사랑 고백에서 있어서 일본은 여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한국·미

국은 남녀가 유사한 수준이며, 중국은 남자가 보다 능동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 8>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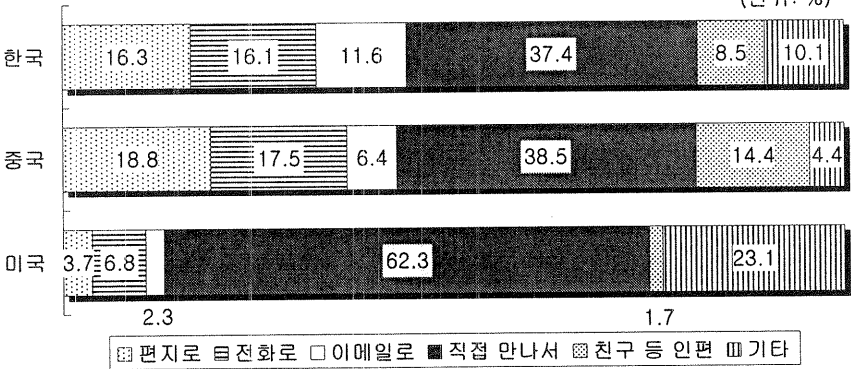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있다	48.3	45.7	33.7	26.5	47.1	52.7	60.5	62.2
없다	51.7	54.3	66.3	73.5	52.9	47.3	39.5	37.8

사랑을 고백한 방식

한국·중국·미국 청소년들 중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였는지 질문하였다(일본은 조사방식의 차이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그림 II- 11]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방법

(단위: %)



응답결과를 보면(“기타”는 비교에서 제외), 한국은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경우가 37.4%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편지(16.3%), 전화(16.1%), 이메일(11.6%)의 순이었고, 친구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고백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8.5%). 중국의 응답결과도 한국과 유사하였으나, 이메일로 고백한 경우가 적은 반면 인편을 활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은 직접 만

나서 고백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었고, 그밖의 방법은 모두 1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은 사랑 고백에 있어서 대다수가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매체나 인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같은 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표 II-9>와 같다.

한국은 직접 만나서 고백한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많았지만, 이메일을 제외한 편지·전화·인편 등 간접적인 고백방식은 여자의 응답률이 높았다. 한국 남자의 경우 이메일로 고백했다는 응답률이 13.2%에 달하여 편지·전화의 응답률과 큰 차이가 없었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직접 만나서 고백한 경험자는 남자가 더 많았지만 남녀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편지로 고백한 경험자도 남자가 많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에서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남자는 직접적인 방식, 여자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의 여자가 한국 여자보다는 다소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고백 방식에 있어서 모든 항목에 걸쳐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9>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방법: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편지로	14.1	18.5	21.4	16.1	3.0	4.3
전화로	13.6	18.5	14.4	20.7	6.7	6.9
이메일로	13.2	10.1	7.0	5.7	3.3	1.4
직접 만나서	45.9	29.1	40.1	36.8	61.2	63.3
다른 사람을 통해서	3.2	13.7	11.8	17.2	1.7	1.7
기타	10.0	10.1	5.3	3.4	24.1	22.3

3. 성별 특성 · 역할관계

청소년들의 성(gender) 관련 인식과 태도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양성관계의 평등화 · 성별 전형성의 해체현상과 더불어 청소년 성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화와 체제를 달리 하는 각국 청소년들이 성별 특성과 성 역할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성별 역할관

성별 고정관념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의식에 대하여 각국의 청소년들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와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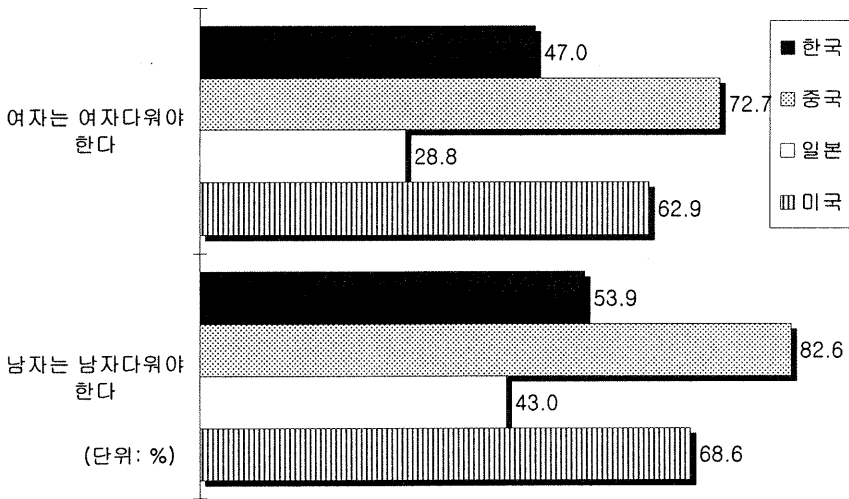
응답결과를 보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에 대하여 찬성한 청소년은 중국과 미국이 과반수에 달한 반면(82.6%, 68.6%), 한국은 절반 가량이었고(53.9%), 일본이 4할대에 머물러 가장 적었다(43.0%).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국의 찬성응답률은 47.0%로서 일본(28.8%)보다는 높았지만 중국 · 미국(72.7%, 62.9%)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대하여 중국 · 미국은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일본은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였고, 한국은 찬 · 반의 비율이 비슷한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양성관계를 둘러싼 각국의 사회 · 문화적 환경과는

배치되는 결과로서 주목할만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가사분담의 측면에서 한국·일본보다 앞서 있는 중국과 미국 청소년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는 현실 행동 차원의 성별 역할관계와는 구분되는 의식차원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 12]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긍정응답률



주: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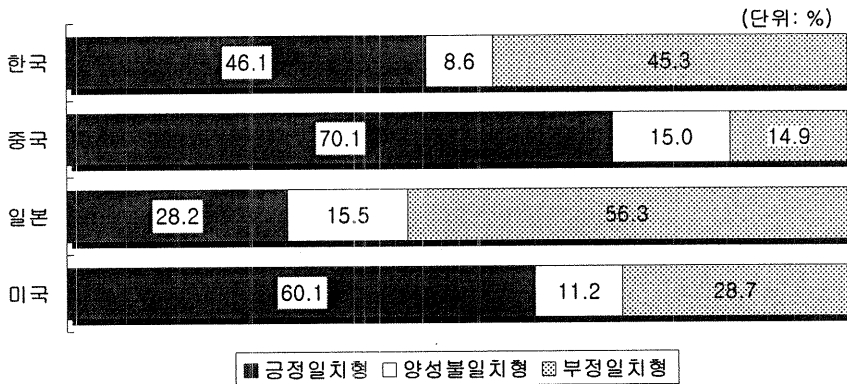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동성/이성에 대한 태도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먼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 I 동성·이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하여 모두 긍정
- II 동성과 이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가 불일치
- III 동성·이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하여 모두 부정

위의 세가지 유형을 각각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긍정일치형”(I), “양성

불일치형”(Ⅱ), “부정일치형”(Ⅲ)으로 명명하고, 각 나라별로 그 비율을 산출한 결과 [그림 Ⅱ-13]과 같이 나타났다¹².

[그림 Ⅱ-13]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포



중국과 미국은 긍정일치형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반면, 일본은 부정일치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고, 한국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지만 비율의 전체적인 분포상 부정일치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미국은 동성·이성에 모두에 대하여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청소년이 다수인 반면, 일본과 한국은 동성·이성 모두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청소년들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중국·미국과 한국·일본의 상반되는 두가지의 입장으로 구분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인

¹² “양성불일치형”은 다시 ① 동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여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경우와, ② 그 반대의 경우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그 비율을 산출한 결과 4개국 모두 ①보다는 ②의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우에는 ①이 0.8%, ②가 7.8%). 즉, “양성불일치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여성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데, 그 요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성별 분포는 <표 II-10>과 같다. 각국에서 성별로 가장 다수인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다른 세 나라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나라는 모두 남녀 구분 없이 다수를 차지한 유형이 동일하였지만(중국·미국: 긍정일치형, 일본: 부정일치형), 한국은 남자는 긍정일치형, 여자는 부정일치형이 각각 다수였다. 이것은 한국의 남학생들은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간의 태도의 차이가 매우 현격한 수준으로서, 보수적인 남학생과 진보적(비판적)인 여학생으로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0>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포: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긍정일치형	61.1	32.3	75.0	66.0	37.9	20.5	64.5	56.2
양성불일치형	8.2	9.0	11.9	17.6	12.5	17.9	10.4	11.9
부정일치형	30.7	58.8	13.1	16.4	49.6	61.6	25.1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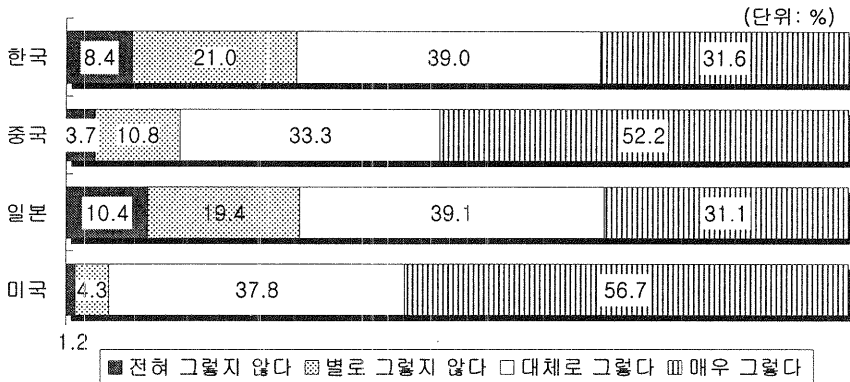
성별 역할관

성별 역할관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과 관련된 세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청소년들의 찬성응답률(94.5%, 85.5%)이 한국·일본(70.6%, 70.2%)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앞서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반응과 일치하고 있다. 즉, 미국·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일본보다 보수적(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 14]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표 II-11>), 한국은 남자의 대다수가 찬성하였지만(82.8%) 여자의 찬성응답률은 6할 수준에 머물러(59.5%),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찬성응답률이 남자보다 낮은 반면, 중국과 미국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한·일 양국의 여학생들은 중국·미국과 비교하여 남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 두고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국과 다른 세 나라의 차이가 현격하였다. 즉, 중국 청소년의 23.2%가 찬성한 반면, 다른 세 나라의 찬성응답률은 1할 안팎에 머물렀다.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전업주부가 드문 중국사회의 청소년들이 한국·일본보다 전업주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전업주부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학생의 경우 전업주부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3.4%에 불과하여 18.1%에 달하는 중국

여학생들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¹³.

<표 II- 11> 전통적인 성별 역할관에 대한 태도: 긍정응답률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	계	70.6	85.5	70.2	94.5
	남자	82.8	84.0	75.8	94.2
	여자	59.5	86.8	65.8	94.7
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 두고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	계	9.3	23.2	11.1	9.4
	남자	15.8	29.3	17.6	14.9
	여자	3.4	18.1	6.0	4.4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면 일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	계	21.0	18.6	27.2	31.7
	남자	31.9	23.2	34.5	39.2
	여자	10.9	14.7	21.5	24.9

주: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수치임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면 일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31.7%), 다음으로 일본(27.2%), 한국(21.0%), 중국(18.2%)의 순이었다. 취업여성들을 위한 탁아·보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아시아 3국보다 긍정응답률이 높은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것은 앞서 전업주부에 대한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역할과 관련한 생활현실과 의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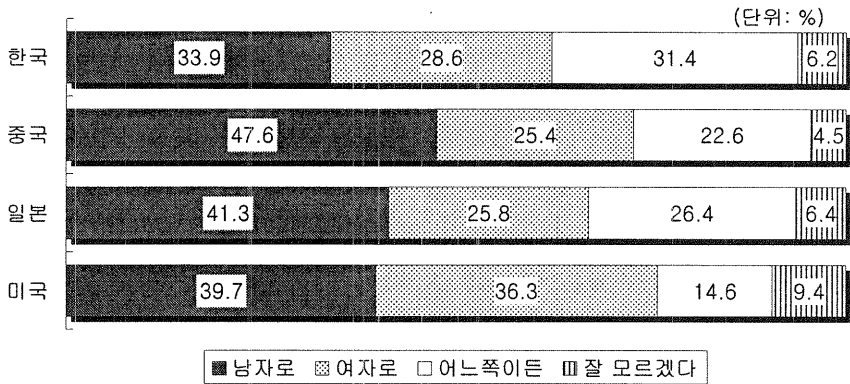
¹³ 1994년에 초등학생(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4)에 따르면 중국 여학생들의 전업주부 선호도는 한국·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즉, 전업주부를 여자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중국(상해)은 1.8%에 머물러 한국(서울: 25.5%), 일본(동경: 36.4%)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중국 여학생들의 전업주부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호전된 것은 시장경제 도입에서 비롯된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종원, 2003: 84).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남자의 긍정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여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이 주부의 육아전념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성 귀속의식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쪽으로 태어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한국은 남자를 선택한 청소년이 33.9%로서 가장 많았고,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가 31.4%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여자를 선택한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28.6%).

[그림 II- 15] 성 귀속의식(“다시 태어난다면...”)



조사대상이 된 네 나라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청소년이 다수였지만, 한·일 양국은 중국·미국과는 달리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는 응답률이 여자를 선택한 응답률보다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남자를 선택한 응답률은 중국이, 여자를 선택한 응답률은 미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은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표 II-12>와 같다. 한국·일본·미국은 모두 다시 태어난다면 동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남녀 모두 남자를 선택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른나라의 응답경향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준인 중국사회의 여학생들이 한국·일본에 비해 여성으로서의 성 귀속의식이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12> 성 귀속의식(“다시 태어난다면…”): 성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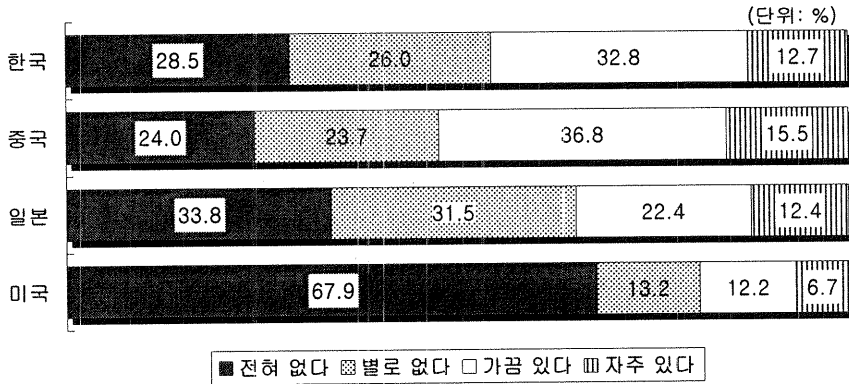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42.6	25.8	53.7	42.4	51.1	33.6	66.9	15.5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15.8	40.3	18.1	31.5	13.1	35.8	7.5	62.0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34.2	28.8	23.5	21.8	28.0	25.2	16.6	12.8
잘 모르겠다	7.4	5.2	4.7	4.3	7.7	5.4	9.1	9.7

부모의 태도

부모님으로부터 남자답게(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을 받은 경험 이 있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가끔 있다”가 32.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혀 없다”(28.5%), “별로 없다”(26.0%)의 순이었으며, “자주 있다”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12.7%). 전체적으로 경험이 있는(자주 또는 가끔) 청소년이 45.5%로서 과반수에 조금 못미쳤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중국이 52.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국·일본(45.5%·34.8%)의 순이었으며, 미국이 18.9%에 머물러 가장 적었다. 동아시아 3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 정체성에 대하여 미국의 부모들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 16] “남자(여자)답게...” 지적받은 경험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표 II-13>과 같다. 네 나라 모두 여자가 지적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 역할 강화활동이 주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자녀지도는 미국보다는 동아시아 3국,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의 경우 지적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남자는 3할대에 머문 반면(37.7%), 여자는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2.7%), 일본은 그 차이가 더욱 현저하였다(11.4%: 53.2%).

<표 II- 13> “남자(여자)답게...” 지적받은 경험: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혀 없다	33.6	23.9	29.8	19.1	56.8	15.6	70.1	65.9
별로 없다	28.7	23.5	24.1	23.4	31.8	31.3	13.7	12.7
가끔 있다	27.4	37.8	33.5	39.7	7.1	34.4	9.3	14.8
자주 있다	10.3	14.9	12.6	17.8	4.3	18.8	6.9	6.5

나. 성별 특성 인식

성별 이미지

각국 청소년들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두 20가지 항목의 성격·행동 특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남성·여성의 이미지 중 어느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¹⁴. 여기서는 각 나라별로 응답률이 높은 상위 5개 항목의 응답결과만을 정리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남성적 이미지라는 응답률이 높은 항목들을 국가별로 정리하면 <표 II-14>와 같다. 한국의 경우,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난폭하다”를 선택하였고(59.6%), 이어서 “믿음직스럽다”(58.0%), “투지가 있다”(55.4%), “심술궂다”(47.0%), “건강하다”(45.5%)의 순이었다.

한국의 응답률 5위권 안에 포함된 항목 중 “난폭하다”는 네 나라 모두에서, “믿음직스럽다”(한국·중국·일본)와 “건강하다”(한국·중국·미국)는 각각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5위권 안에 포함되어 이들 성격·행동특성이 각국 청소년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다른나라와의 차이점은 “투지가 있다”가 포함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심술궂다”는 한국 이외에 미국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나라에서 상위 5위권에 포함된 “농담을 잘 한다”(중국·일본·미국), “분명하게 주장한다”(중국), “정열적이다”(일본)와 같은 항목들이 한국에서는 제외되었다.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른나라는 공통적으로 남녀간의 구분이 어려운 성 중립적인 이미지(“농담을 잘 한다” “정열적이다” “분명하게 주장한다” 등)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해 한국은

¹⁴ 원래 조사표에서는 각 성격·행동 특성에 대하여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구별이 불가능하다” “잘 모르겠다”의 네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성별 이미지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후자의 두가지 선택지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세부적인 응답결과는 부록의 조사결과 단순집계표를 참고할 것.

전형적인 남성성을 대변하는 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4> 남성의 이미지: 응답률 상위 5개 항목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난폭하다 (59.0)	농담을 잘 한다 (75.6)	난폭하다 (66.0)	난폭하다 (71.3)
2	믿음직스럽다 (58.0)	건강하다 (56.5)	농담을 잘 한다 (55.2)	건강하다 (55.6)
3	투지가 있다 (55.4)	믿음직스럽다 (51.2)	믿음직스럽다 (55.0)	심술궂다 (48.1)
4	심술궂다 (47.0)	난폭하다 (51.1)	불량스럽다 (52.1)	농담을 잘 한다 (47.8)
5	건강하다 (45.5)	분명하게 주장 한다(48.0)	정열적이다 (44.1)	불량스럽다 (43.9)

주: 복수응답 항목임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수다스럽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59.3%), 다음으로 “상냥하다”(57.3%), “귀엽다”(55.6%), “암전하다”(52.5%), “변덕스럽다”(40.4%)의 순이었다. 이중 “수다스럽다”와 “상냥하다” “귀엽다”는 모든 나라에서 응답률 상위 5위권에 포함되어 이들 성격·행동특성이 각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여성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암전하다”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변덕스럽다”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나라에서 상위 5위권에 포함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빠진 항목으로는 “제멋대로이다”(중국·일본), “투지가 있다”(중국), “정열적이다” “명랑하다”(미국) 등이 있다.

각국의 특징과 차이점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두나라에만 “암전하다”가 포함되어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투지가 있다”(중국), “정열적이다”(미국)와 같은 성 중립적인 항목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II - 15> 여성의 이미지: 응답률 상위 5개 항목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	수다스럽다 (59.3)	귀엽다 (74.1)	귀엽다 (84.6)	상냥하다 (85.6)
2	상냥하다 (57.3)	제멋대로이다 (63.8)	수다스럽다 (72.3)	명랑하다 (76.9)
3	귀엽다 (55.6)	상냥하다 (61.9)	제멋대로이다 (66.1)	정열적이다 (74.4)
4	얌전하다 (52.5)	수다스럽다 (58.6)	상냥하다 (53.1)	수다스럽다 (66.3)
5	변덕스럽다 (40.4)	투지가 있다 (44.7)	얌전하다 (51.6)	귀엽다 (64.6)

주: 복수응답 항목임

전체적으로 성별 이미지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경향을 종합해 보면,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적극적·능동적인 남성과 소극적·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미국 청소년들의 성별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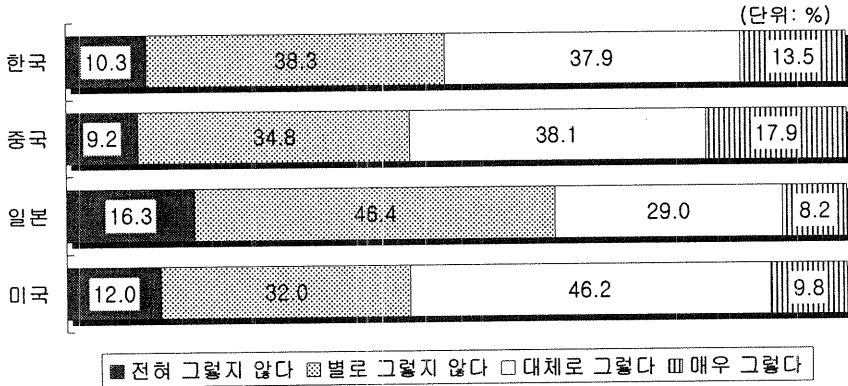
남성 약화현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이나 행동특성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약화되어 수렴화하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의 약화현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하여 긍정·부정의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긍정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과 미국이 모두 56.0%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한국이 중간이었으며(48.6%), 일본이 가장 낮았다(37.3%). 남성 약화현상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반응은 과반수가 긍정하는 중국·미국과 부정응답률이 더 높은 한국·일본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 17]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



과거에는 남성 약화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로 나누어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은 28.0%(초등학생 때), 32.8%(중학교 때)에서 현재의 51.4%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일본·중국도 동일하였다¹⁵. 즉, 4개국 청소년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월이 경과할수록,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더욱 남성의 약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이 약해졌다는 의견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표 II-16>과 같다. 한국은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53.3%로서 남자(49.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모두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았는데, 특히 한국·중국보다는 일본·미국 청소년들의 성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일수록 남성 약화현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¹⁵ 미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됨. 각국 청소년들의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의 응답결과는 부록의 조사결과 단순집계표를 참조할 것.

<표 II- 16>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혀 그렇지 않다	14.7	6.2	11.1	7.6	25.0	9.2	15.6	8.9
별로 그렇지 않다	36.0	40.5	35.6	34.1	42.9	49.3	34.6	29.7
대체로 그렇다	36.4	39.3	34.6	40.9	25.0	32.4	41.7	50.2
매우 그렇다	12.9	14.0	18.6	17.4	7.1	9.2	8.1	11.3

남자들이 약해졌다는 의견에 찬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3가지의 선택항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복수응답).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남자들이 “책임을 다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53.3%)라고 응답하였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46.9%), “패기가 없기 때문에”(42.9%)의 응답률도 4할을 상회하였다.

<표 II- 17> 남자들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46.9	36.3	41.3	38.1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34.2	38.0	47.7	38.3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35.0	36.0	38.8	41.2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여서	28.7	23.2	18.5	41.7
암전하기 때문에	13.8	18.5	26.7	20.6
투지가 없기 때문에	34.0	42.3	26.7	57.5
패기가 없기 때문에	42.7	24.4	17.4	16.5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기 때문에	15.1	7.1	6.0	9.9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기 때문에	7.6	8.1	6.0	8.4
활동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23.1	27.2	12.5	18.4
무기력하기 때문에	24.4	28.2	28.8	39.9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53.3	38.5	24.2	72.3
매스컴에서 여학생들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9.6	36.3	5.0	1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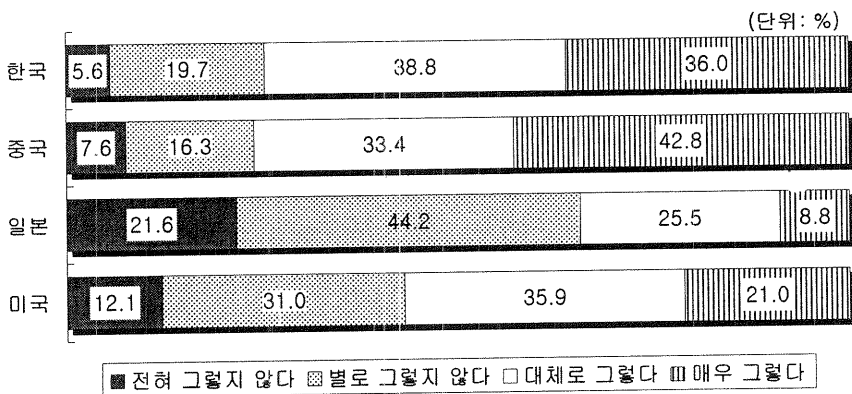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중국은 “투지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를 선택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각국의 응답결과에서 특이한 사항은 매스컴의 영향(“매스컴에서 여학생들만 부각시키기 때문에”)을 지적한 청소년이 중국은 36.3%에 달하여 1할 이내에 머문 다른 나라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는 점인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 결혼관

각국 청소년들의 결혼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혼전순결, 결혼의 필요성,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세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 청소년들의 긍정응답률이 76.3%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74.8%), 미국(56.9%)의 순이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34.3%). 다른나라는 모두 혼전순결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한 반면, 유독 일본만 반대하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표 Ⅱ-18>), 한국·중국·미국은 여자의 찬성응답률이 남자보다 다소 높았지만, 일본은 남자의 찬성응답률이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Ⅱ-18]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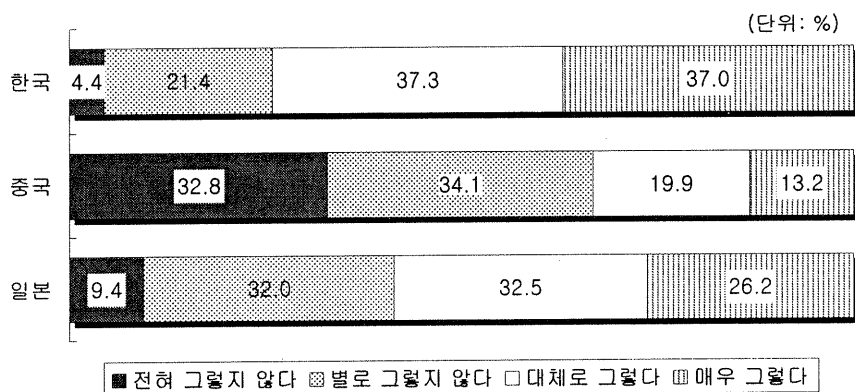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결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국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51.6%)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찬성응답률은 37.7%로서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일본(20.3%, 17.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한국과 일본은 남자의 찬성응답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은 반면, 중국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혼전순결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혼전순결 문제에 대해서는 급속한 성개방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일본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한다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다”는 의견(미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됨)에 대해서 찬성한 청소년은 한국이 74.3%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일본도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58.7%), 중국은 3할 수준에 머물렀다(33.1%). 자본주의체제의 배금주의 사상이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결혼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세 나라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한국·일본이 중국에 비해 더욱 현저하였다.

[그림 II- 19] “결혼한다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다”



<표 II- 18> 결혼관: 긍정응답률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계	74.8	76.2	34.3	56.9
	남자	72.2	74.2	41.0	52.5
	여자	77.0	77.7	28.9	60.8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결혼할 필요가 있다	계	36.7	51.6	17.9	20.3
	남자	51.6	53.0	24.7	25.8
	여자	23.1	50.4	12.6	15.5
결혼한다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다	계	74.3	33.1	58.7	-
	남자	63.2	28.3	42.6	-
	여자	84.4	37.2	71.2	-

주: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수치임

4. 일상활동 · 생활의식

이 장은 청소년들의 일상활동 빈도,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자아·인생관, 귀속집단 만족도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활동 빈도에서는 교우·이성관련 활동, 가족과의 대화, 매체관련 활동의 세가지 영역별로 청소년들의 활동빈도를 측정하였다. 문제행동 평가에서는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12가지 항목의 행동유형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자아·인생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인식과 원하는 삶의 방식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귀속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국가, 가정(부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 일상활동 빈도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의 빈도를 모두 7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교우·이성관련 활동, 가족과의 대화, 매체관련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로 한다.

교우 · 이성관련 활동

학교밖에서 친구와 만나는 빈도의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일주일에 한번이 31.9%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주일에 2~3번(30.3%), 거의 매일(19.3%)의 순이었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8.2%로서 가장 적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친구와 만나는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49.6%로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3할대로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33.1%, 30.1%), 중국이 5.2%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친구와 전화·이메일 주고받기의 빈도를 보면, 한국은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4.5%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주일에 2~3번(23.9%), 일주일에 한번(16.8%) 순이었으며,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은 13.9%로서 가

장 적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한국·미국이 모두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81.4%, 68.4%, 68.3%), 중국은 2할대로서(27.9%)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성과의 데이트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미국과 동아시아 3국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미국은 3할 수준인 반면(32.5%), 한·중·일 3국은 모두 7할을 상회하였다(74.6%, 83.5%, 76.9%).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데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미국이 41.1%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12.7%), 일본(10.8%), 중국(4.8%)의 순이었다.

<표 II-19> 활동빈도: 교우·이성관련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학교밖에서 친구들과 만난다	거의 하지 않는다	18.2	67.0	38.2	37.3
	일주일에 한번 정도	31.9	27.2	31.2	28.9
	일주일에 2~3번 정도	30.3	3.7	18.6	21.0
	거의 매일	19.3	1.5	11.5	12.1
	무응답	0.3	0.6	0.5	0.7
친구와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 받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13.9	36.0	13.2	15.9
	일주일에 한번 정도	16.8	35.7	5.0	14.3
	일주일에 2~3번 정도	23.9	21.5	14.8	22.7
	거의 매일	44.5	6.4	66.6	45.6
	무응답	0.8	0.4	0.4	1.4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74.6	83.5	76.9	32.5
	일주일에 한번 정도	11.5	10.4	10.6	24.7
	일주일에 2~3번 정도	8.6	2.4	5.6	15.4
	거의 매일	4.1	2.4	5.2	25.7
	무응답	1.1	1.2	1.7	1.7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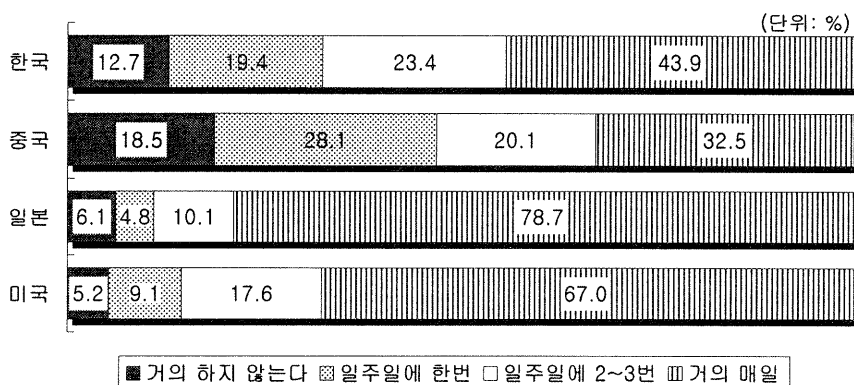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친구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의 빈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잦은 편이지만, 이성과의 만남은 미국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3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친구와의 접촉이나 이성과의 데이트 빈도 모두 다른나라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중국 청소년들의 오랜 공부시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II-3] 참조).

가족과의 대화

각국 청소년들이 가족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23.4%), 일주일에 한번 정도(19.4%)의 순이었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7%로서 가장 적었다.

[그림 II- 20] 가족과의 대화빈도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가족과 대화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하면, 일본·미국은 모두 8할을 넘었고(88.8%, 84.6%), 한국이 67.3%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중국이 52.6%로서 가장 적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과의 대화 빈도가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¹⁶.

¹⁶ 1997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한국이 56.3%로서 일본(78.5%)보다 적었다(정희옥 외 2

매체관련 활동

각종 정보매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활동빈도를 인터넷 채팅, 독서, 신문 읽기의 세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먼저 인터넷 채팅의 경우, 한국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6.5%로서 과반수가 현재 채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별로는 거의 매일이 24.7%로서 일주일에 한번(13.2%)이나 2~3번(14.8%)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채팅을 하는 청소년은 한국과 미국이 39%로서 중국·일본(10.9%, 6.0%)의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 한국·미국 청소년들의 채팅빈도가 이와 같이 높은 것은 중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인터넷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채팅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한국·미국 청소년들의 높은 중독 가능성이다. 빈도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응답률이 낮아지는 중국·일본과는 달리, 한국·미국은 거의 매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4에 달하여 가끔씩(일주일에 한번 또는 2~3번) 하는 청소년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이것은 양국사회에서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팅에 몰입하는 청소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활동 빈도에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35.7%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29.5%), 일주일에 2~3번(21.8%)의 순이었으며, 거의 매일(12.6%)이 가장 적었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독서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국이 54.1%로서 가장 많았고, 한국과 일본이 중간이었으며(34.4%, 31.6%), 미국이 22.4%로서 가장 적었다. 독서를 자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일 양국이 비슷하

인: 1997). 또한 1994년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한국(서울)은 74.8%에 달하여 일본(동경: 46.7%), 미국(뉴욕: 59.3%)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4).

지만,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훨씬 높아서 대체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보다는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 20〉 활동빈도: 매체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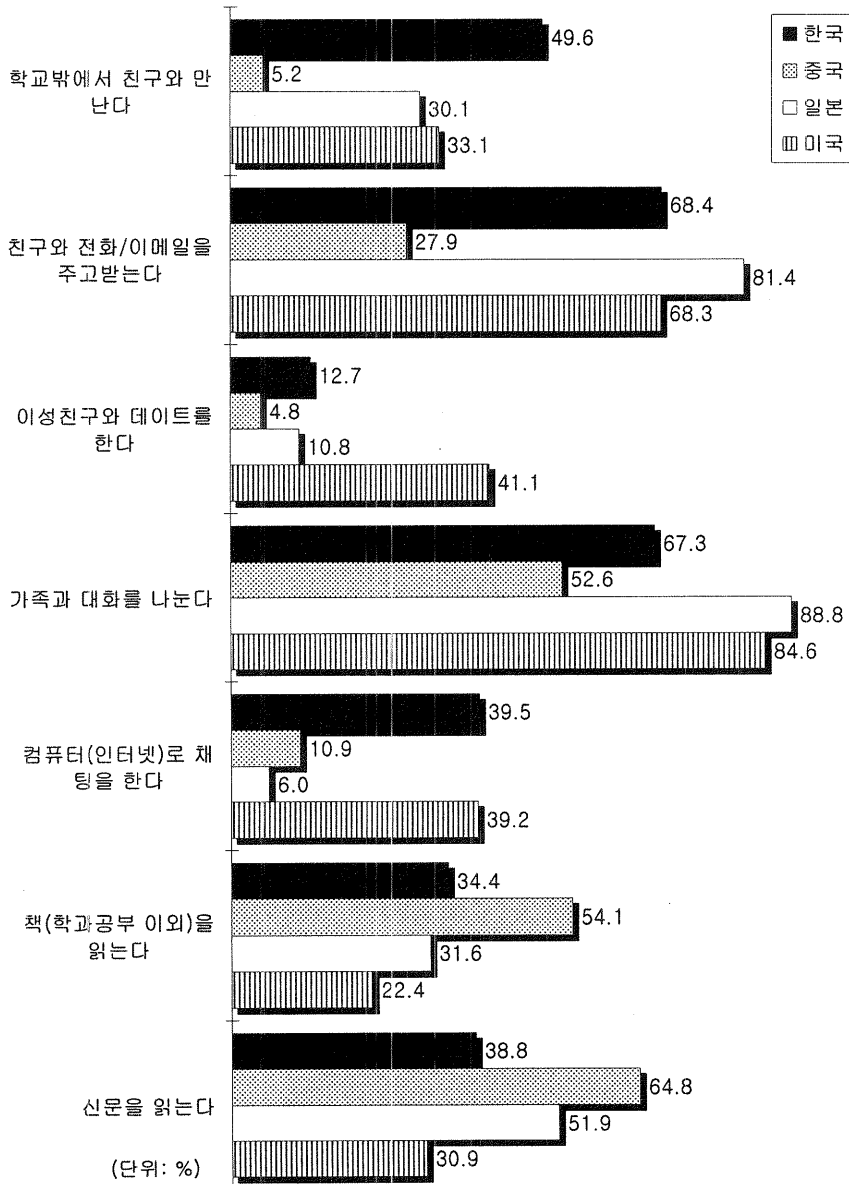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컴퓨터(인터넷) 로 채팅을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46.5	63.9	85.7	44.5
	일주일에 한번 정도	13.2	25.0	7.0	15.1
	일주일에 2~3번 정도	14.8	9.3	4.1	16.0
	거의 매일	24.7	1.6	1.9	23.2
	무응답	0.7	0.2	1.4	1.2
책(학과공부 이 외)을 읽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29.5	17.7	50.0	56.3
	일주일에 한번 정도	35.7	27.7	17.8	20.6
	일주일에 2~3번 정도	21.8	31.3	12.2	11.0
	거의 매일	12.6	22.8	19.4	11.4
	무응답	0.5	0.5	0.5	0.7
신문을 읽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38.2	16.6	34.3	37.2
	일주일에 한번 정도	22.4	18.1	13.4	31.1
	일주일에 2~3번 정도	19.8	26.0	17.7	19.1
	거의 매일	19.0	38.8	34.2	11.8
	무응답	0.6	0.4	0.5	0.8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신문읽기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은 거의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8.2%였고, 빈도가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감소하여 거의 매일 신문을 읽는 청소년은 전체의 1/5 미만이었다(19.0%). 일주일에 2~3번 이상 자주 신문을 읽는 청소년은 중국과 일본이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64.8%, 51.9%), 한국과 미국은 3할대에 머물러(38.8%, 30.9%)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앞서 인터넷 채팅의 응답결과를 고려하면,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신문읽기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양국에서 인터넷이 점차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정보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II- 21] 일상활동 빈도: 일주일에 2~3번 이상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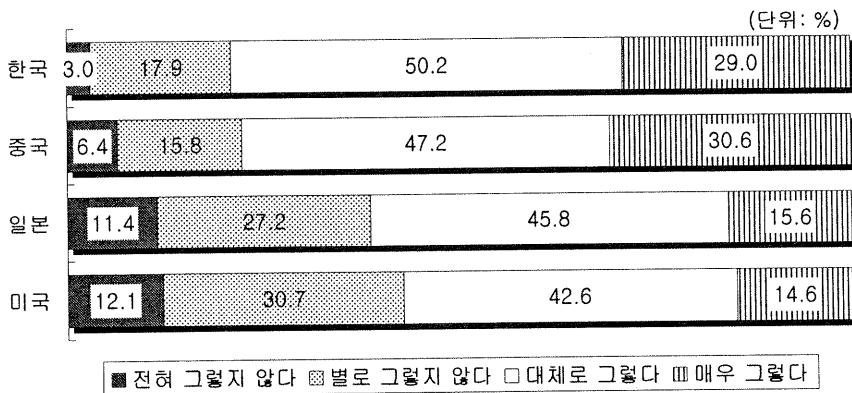


유행추구 성향

신세대 청소년들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가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각국 청소년들의 유행추구 성향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긍정·부정의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가 50.2%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도 3할 수준에 달하여 대다수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각국의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한국이 79.2%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77.8%), 일본(61.4%), 미국(57.2%)의 순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유행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으며, 선진국 청소년들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22]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유행추구 성향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II-21>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78.1%, 80.1%), 여성이 유행에 보다 민감하다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경우에도 긍정응답률의 남녀간의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일본과 미국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유행추구 성향의 성별 응답결과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

는 한국·중국과 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미국으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I-21>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혀 그렇지 않다	3.9	2.2	7.9	5.1	15.7	8.1	16.4	8.3
별로 그렇지 않다	18.0	17.7	14.2	17.3	32.3	23.3	35.3	26.6
대체로 그렇다	49.0	51.2	46.8	47.6	38.9	51.2	37.2	47.3
매우 그렇다	29.1	28.9	31.2	30.1	13.1	17.4	11.0	17.8

나. 문제행동 평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행동에 대한 각국의 청소년들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두 12가지 항목의 문제행동 유형에 대하여 “좋지 못한 행동이다” “본인의 자유이다” “나쁜 행동은 아니다”의 세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¹⁷. 조사대상이 된 문제행동 유형을 예절형(일상생활예절 관련), 반항형(교사·부모 등 권위에 대한 반항), 풍속형(파션·이성교제 관련), 범죄형(절도·매춘 등 형법상의 범죄 해당 항목)¹⁸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¹⁷ 당초 조사문항은 14항목이었으나 중국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두 항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선택지는 원래 “좋은 행동이다”를 포함한 네가지였으나 그 응답률이 모든 항목에 걸쳐 극소수에 불과하여 표에서는 “나쁜 행동은 아니다”의 응답률에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에서 누락된 조사항목 및 “좋은 행동이다”의 응답률은 부록의 단순집계표를 참조할 것.

¹⁸ 여기서는 “문제행동”을 지위비행과 범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12항목의 문제행동 유형 중에서 “범죄형”에 속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청소년이라는 신분요건에 근거한 지위비행에 해당된다.

예절형 문제행동

일상생활에서의 공중예절·관습과 관련된 예절형 문제행동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피해 정도에 있어서 가장 경미한 수준의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3가지 항목의 예절형 문제행동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철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행동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76.0%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하였고 본인의 자유 또는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응답률은 1할 남짓한 소수에 머물렀다. 부정적(“좋지 못한 행동이다”)으로 평가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미국이 21.5%에 불과하여 과반수를 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이 일본과 한국이 모두 7할을 상회하여(77.1%, 76.0%), 절반 수준인 중국(52.4%)보다 훨씬 많았다. 대중 교통수단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미국이 동아시아 3국보다, 동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중국이 한국·일본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전철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과반수가 본인의 자유라고 평가하여(51.5%)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각국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하면, 일본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많았고(54.0%), 이어서 중국(24.2%), 한국(19.9%)의 순이었으며 미국이 가장 적었다(7.8%). 한·일 양국 모두 전철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중에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동에 대해서 한국은 과반수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하였다(64.8%). 다른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이 미국·일본은 3~4할 수준에 머물러(31.0%, 40.4%), 6할을 상회하는 한국·중국(65.0%)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한국·중국 청소년들 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양국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II-23] 참조).

전철에서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한국은 약 7할

정도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른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6할을 상회하였고, 한·중·일 3국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69.7%, 68.8%, 66.3%). 사회관습상 노인에게 좌석 양보하기가 일반화된 한국과 미국·일본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행동의 빈도와 그 행동에 대한 인식(평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II - 22> 예절형 문제행동 평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76.0	52.4	77.1	21.5
	본인의 자유이다	13.9	31.3	18.4	47.7
	나쁜 행동은 아니다	10.1	16.3	4.5	30.8
전철 안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19.9	24.2	54.0	7.8
	본인의 자유이다	51.5	43.5	31.0	34.3
	나쁜 행동은 아니다	28.5	32.3	15.0	58.0
수업 중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64.8	65.0	40.4	31.0
	본인의 자유이다	23.9	24.1	49.9	39.7
	나쁜 행동은 아니다	11.3	10.9	9.8	29.3
전철에서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69.7	68.8	66.3	63.3
	본인의 자유이다	15.9	21.1	28.8	25.5
	나쁜 행동은 아니다	14.4	10.1	4.9	11.2

반항형 문제행동

부모·교사 등 기성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형태의 문제행동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님께 반항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8할 이상이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였고(84.8%), 본인의 자유 또는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다른나라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일본이 20.3%로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미국(54.2%), 중국(70.9%)의 순이었으며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중국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반항하는 행동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반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82.0%).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미국(69.3%, 57.2%)이 모두 과반수를 넘는 반면, 일본은 2할 수준에 머물렀다(24.3%). 교사에 대한 반항에 대해서도 일본은 과반수가 본인의 자유라고 응답하여 다른 세 나라의 청소년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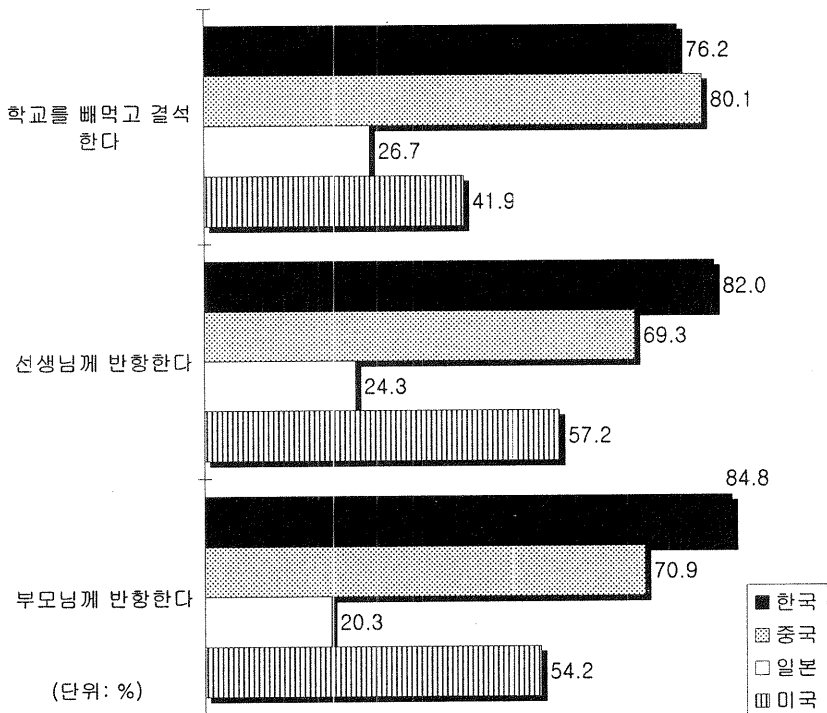
<표 II-23> 반항형 문제행동 평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부모님께 반항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84.8	70.9	20.3	54.2
	본인의 자유이다	9.0	18.9	53.7	33.5
	나쁜 행동은 아니다	6.2	10.1	26.0	12.4
선생님께 반항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82.0	69.3	24.3	57.2
	본인의 자유이다	11.0	18.4	51.4	31.6
	나쁜 행동은 아니다	7.1	12.3	24.3	11.2
학교를 빼먹고 결석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76.2	80.1	26.7	41.9
	본인의 자유이다	20.0	15.8	68.3	49.2
	나쁜 행동은 아니다	3.8	4.1	5.1	8.9

부모·교사 등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항하는 행동에 대하여 유교적 문화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대다수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한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생활영역 전반에서 기성세대의 권위가 크게 존중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의 권위가 급격하게 해체되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 23] 반항형 문제행동 평가: “좋지 못한 행동이다”



학교 무단결석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모·교사에 대한 반항과 동일한 응답경향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8할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76.2%, 80.1%), 일본은 2할 수준에 머물러 미국(41.9%)보다도 더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풍속형 문제행동

청소년들의 과격한 패션 착용과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 이용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과격한 패션에 대하여 한국은 본인의 자유라는 응답이 대다수였고(72.8%),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여 대체로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각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이 중국은 39.3%에 달하여, 1할 안팎의 한국·미국·일본(13.6%, 11.3%, 9.5%)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옷차림에 있어서는 중국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이성교제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 한국은 과반수가 본인의 자유라고 응답하였고(59.8%),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응답률은 13.6%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세나라는 모두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 특히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는 일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서 그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결과의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⁹.

¹⁹ “이성교제 사이트”는 일본 조사표의 “出会い系サイト”(만남의 계 사이트)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나 개념이 없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본에서 出会い系 사이트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고 파트너를 구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때로는 매매춘이나 원조교제를 매개하는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중국은 조사표에서 “網戀”, 미국은 “Access a web site to meet someone for sexual purpos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에서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반응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 - 24> 풍속형 문제행동 평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과격한 옷차림 (패션)을 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13.6	39.3	9.5	11.3
	본인의 자유이다	72.8	46.8	79.7	56.7
	나쁜 행동은 아니다	13.6	13.9	10.8	32.0
인터넷 이성교제 사이트를 이용 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24.9	46.3	47.2	50.6
	본인의 자유이다	59.8	39.8	46.2	40.4
	나쁜 행동은 아니다	15.3	14.0	6.7	9.0

범죄형 문제행동

앞에서 조사한 문제행동의 유형들은 모두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근거한 “지위비행”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형법상 범죄사유가 될 수 있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의 절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은 9할 이상의 절대다수가 좋지 못한 행동으로 평가한 반면(91.7%, 92.6%), 일본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이 8할 수준에 머물렀고(84.9%) 미국은 6할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66.5%). 범죄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동아시아 3국 청소년들이 보다 엄격하고, 일본보다는 한국·중국 청소년들이 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매매춘에 대해서도 각국 청소년들은 앞서 절도와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이 91.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86.8%), 일본(72.5%)의 순이었으며 미국이 62.7%에 머물러 가장 적었다. 매매춘에 대하여 절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중국·한국과는 달리 일본·미국은 본인의 자유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하여(25.5%, 30.5%)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었다.

각성제·마약복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아시아 3국의 응답결과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절도나 매매춘에 대한 반응과는 달리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일본 청소년들도 한국·중국과 더불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3.5%, 88.9%, 89.4%). 반면에 미국은 본인의 자유 또는 나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여 미국사회의 심각한 마약문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표 II-25〉 범죄형 문제행동 평가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91.7	92.6	84.9	66.5
	본인의 자유이다	6.0	5.4	13.0	28.1
	나쁜 행동은 아니다	2.2	2.0	2.2	5.4
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86.8	91.0	72.5	62.7
	본인의 자유이다	9.5	6.4	25.5	30.5
	나쁜 행동은 아니다	3.8	2.6	2.0	6.9
각성제나 마약을 복용한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88.9	89.4	83.5	51.0
	본인의 자유이다	9.0	7.6	14.8	40.7
	나쁜 행동은 아니다	2.0	3.0	1.8	8.2

다. 자아·인생관

전체 비교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관·인생관과 관련한 모두 9가지의 진술형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긍정·부정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II-24]는 각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만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아관·자아인식과 관련된 항목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곧 체념해 버리는 편이다”의 긍정응답률은 일본(42.1%), 한국(39.8%), 중국(23.6%), 미국(16.4%)의 순이었다. 한국·일본 청소년들이 중국·미국에 비해 현실에 대한 도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다른사람들 눈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편이다”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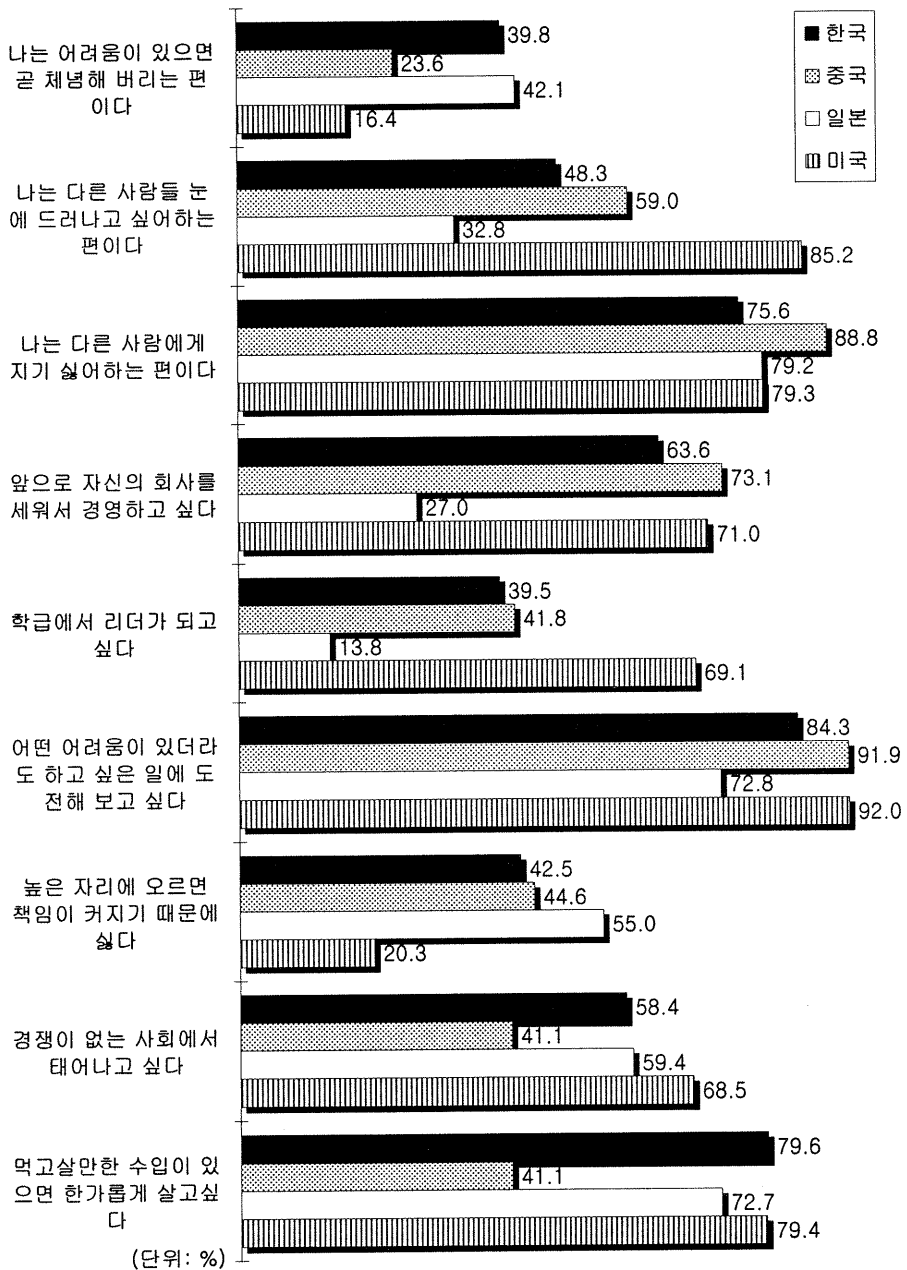
긍정응답률이 미국(85.2%), 중국(59.0%), 한국(48.3%), 일본(32.8%)의 순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편이다”의 긍정응답률은 중국(88.8%)이 가장 높고, 한국·일본·미국은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75.6%, 79.2%, 79.3%). 전체적으로 중국·미국 청소년들이 한·일 양국 청소년들에 비해 적극적·능동적인 자아관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방식·인생관과 관련된 6개 항목의 응답결과는 대체로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응답경향이 중국·미국과 한국, 일본의 세 그룹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항목들로서, “학급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미 69.1%-중 41.8%, 한 39.5%, 일 13.8%), “앞으로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중 73.1%-미 71.0%, 한 63.6%, 일 27.0%),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미 92.0%-중 91.9%, 한 84.3%, 일 72.8%)의 세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항목은 리더쉽·자립심·도전의식과 관련된 진취적인 인생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각 항목별 긍정응답률의 분포는 모두 중국·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중간이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 앞서 자아관의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중국·미국 청소년들이 한국·일본에 비해 보다 긍정적·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3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가 대비되는 것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싫다”(일 55.0%-중 44.6%-한 42.5%, 미 20.3%)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싶다”(미 68.5%, 일 59.4%-한 58.4%-중 41.1%)의 두 항목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동아시아 3국의 응답결과의 차이는 지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관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논리가 지배적인 미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4] 자아관·인생관: 긍정응답률



주: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산한 수치임

한편, “먹고살만한 수입이 있으면 한가롭게 살고 싶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중국이 41.1%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3개국은 모두 7할을 상회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한 79.6%, 미 79.4%, 일 72.7%). 경제적인 풍요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한국·미국·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중국사회 청소년들의 높은 근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척도점수 비교

자아관·인생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전체적인 내용구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2가지로 지정하였고 직교회전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는 한국 청소년들의 응답내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이다²⁰.

<표 II- 26> 자아관·인생관의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표

	요인	
	I	II
학급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0.720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편이다	0.7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편이다	0.692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0.578	
앞으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고 싶다	0.576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싶다		0.736
먹고살만한 수입이 있으면 한가롭게 살고 싶다		0.698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곧 체념해 버리는 편이다		0.585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싫다		0.567

주: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

추출된 두가지 요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들 요인은 대체로 변화·도

²⁰ 요인분석의 결과는 4개국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전 지향(요인Ⅰ)과 현실 안주 지향(요인Ⅱ), 개성·지위 지향(요인Ⅰ)과 평범성·안정 지향(요인Ⅱ)의 상반되는 두가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요인이 담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Ⅰ을 “개혁·도전의식”, 요인Ⅱ를 “안분(安分)·자족(自足)의식”으로 명명하고 각국 청소년들의 자아관·인생관을 비교하는 척도로서 활용하기로 하였다²¹.

자아·인생관의 두가지 척도에 대한 4개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 27> 자아·인생관 척도점수 평균값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도전·개혁의식	전체	2.82	2.96	2.43	3.09
	남자	2.81	3.02	2.50	3.09
	여자	2.82	2.92	2.38	3.08
안분·자족의식	전체	2.68	2.27	2.67	2.43
	남자	2.75	2.26	2.62	2.43
	여자	2.62	2.28	2.72	2.44

먼저 도전·개혁의식 척도의 평균값은 미국이 가장 높고(3.09), 이어서 중국(2.96), 한국(2.82)의 순이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2.43). 사후검증(Duncan 방식)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의욕의 측면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성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교육제도, 긍정적인 자유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인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시장경제의 도입기에서 고도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한국이 중간이었으며, 일본은 두 나라와 큰 격차를 두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도전·개혁의식의 성별 척도점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미국은 두드러진 차이가 없는 반면 중

²¹ 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67, 0.55로 나타났다.

국·일본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안분·자족의식의 척도점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2.68, 2.67), 미국이 중간이며(2.43), 중국이 가장 낮았다(2.27). 사후검증 결과,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그룹으로 유별되어, 중국·미국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중국·미국에 비해 현실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기피하고 현상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적 물이 지배적인 미국과는 달리 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사회관계가 증시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경제여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분·자족의식에 대한 성별 척도점수는 한국은 남자가, 일본은 여자가 더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중국·미국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자신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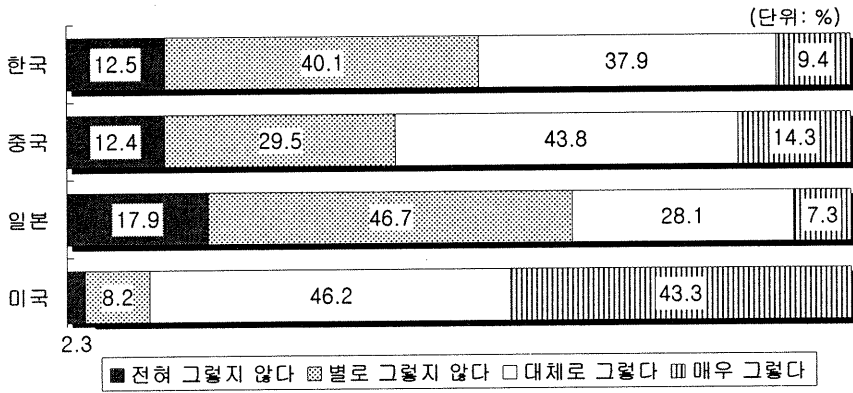
청소년들이 자기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는 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부정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한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약한 부정(“별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40.1%), 약한 긍정(“대체로 그렇다”)이 그 다음이었고(37.9%), 강한 부정과 긍정은 각각 1할 안팎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부정 응답률이 긍정 응답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각국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미국의 긍정응답률이 약 9할에 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만족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8.1%), 다음이 한국이었으며(47.3%), 일본 청소년의 만족응답률은 4할에도 못미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35.4%)²².

²²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은 이미 몇차례의 선행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즉, 1997년의 조사결과에 따르

[그림 II- 25]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표 II-28>과 같다. 한국과 미국은 만족응답률에 있어서 남녀간의 성차가 거의 없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대체로 남자의 만족응답률이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 28>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성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혀 그렇지 않다	12.8	12.3	13.2	11.7	15.5	19.9	2.7	2.0
별로 그렇지 않다	39.6	40.6	26.3	32.2	45.3	47.8	8.8	7.6
대체로 그렇다	35.1	40.6	44.2	43.4	30.7	26.1	46.7	45.8
매우 그렇다	12.6	6.6	16.3	12.6	8.6	6.3	41.8	44.6

면, 한국의 중·고교생 중 자기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은 44.2%로서 중국(68.1%), 일본(48.1%)에 비해 적은 편이다(정희욱 외, 1997). 또한 2000년의 조사에서는 한국 중·고교생들의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응답률이 37.2%로서 일본(23.1%)보다는 높았지만, 미국(88.8%), 프랑스(70.7%) 등 구미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윤철경 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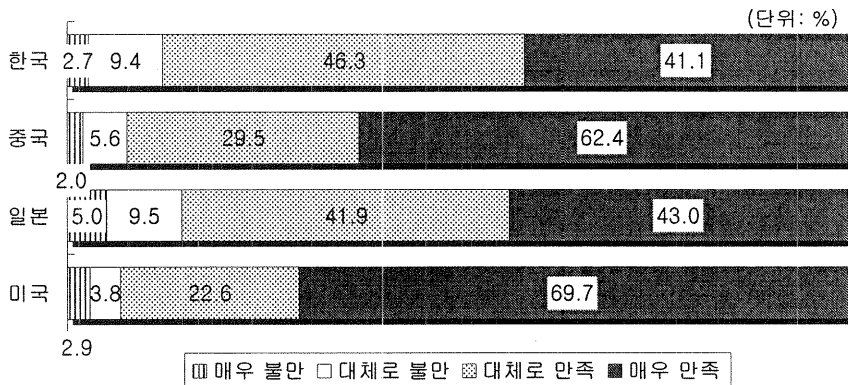
라. 귀속집단 만족도

부모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대체로 만족한다”가 46.3%로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도 4할을 상회하여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은 1할 남짓한 소수였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을 느끼는 청소년이 다수였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각국 청소년들의 만족응답률을 비교하면, 미국·중국이 9할 이상인 반면(92.3%, 91.9%), 한국과 일본은 8할대에 머물렀다(87.4%, 84.9%). 특히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한·일 양국과 미국·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현저하였다.

[그림 II-26] 자기 부모 만족도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주: 무응답은 그림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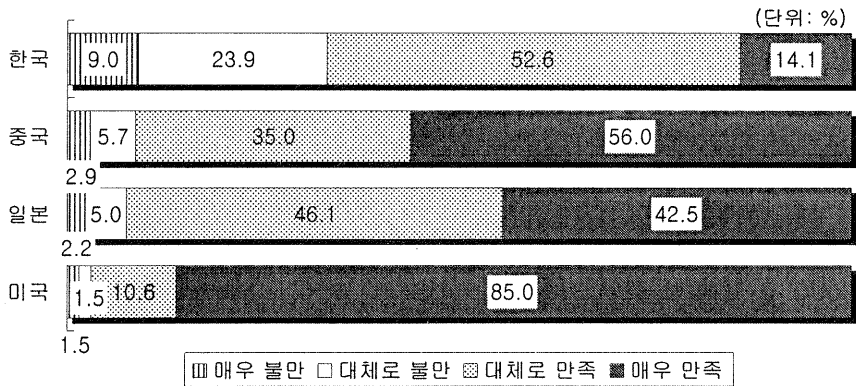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부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앞서 부모에 대

한 반향 행위 평가의 응답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그림 II-23] 참조),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양의사도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²³.

국가만족도

청소년들의 자국 국민으로서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단계별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절반 정도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52.6%), 이어서 “대체로 불만이다”(23.9%), “매우 만족한다”(14.1%)의 순이었고, “매우 불만이다”가 1할 미만으로서 가장 적었다(9.0%).

[그림 II-27] 자국 국민으로서의 만족도



자료: 한국을 제외한 3국은 日本青少年研究所(2002)

주: 무응답은 그림에서 제외함.

한국 국민으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과반수에 달하지만, 다른나라

²³ 예를 들면, “견지 못하는 부모”의 부양방법으로서 한국(서울)의 초등학생은 76.2%가 자기집에 모시고 시중을 들겠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동경)은 54.1%에 머물렀고, 양로원에 모시겠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24.1%로서 한국(0.4%)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ベネッセ教育研究所, 1994).

와 비교할 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각국 청소년들의 만족응답률을 비교하면, 미국과 중국이 9할을 상회하여 가장 높았고(95.6%, 91.1%), 일본이 중간이었으며(88.6%), 한국은 이들 세 나라와 큰 격차를 두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66.7%).

한국 청소년들의 국가(자국민) 만족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의사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²⁴, 낮은 국가만족도가 곧 국가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²⁴ 일본 靑少年対策本部의 1998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국은 82.9%에 달하여 일본(49.3%), 미국(53.3%), 영국(66.5%) 등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靑少年対策本部, 1999).

III. 요약 및 논의

1. 조사결과 요약

학업·학교생활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평가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미국·중국은 중/상위권에 편중되어 하위권이 드문 반면, 한국·일본은 중위권이 가장 많고 상/하위권이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미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다음이 중국이며,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최종학력은 중국이 석·박사학위 취득(60.3%), 한국은 대학교 졸업(56.0%), 일본은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50.2%)이 각각 과반수를 차지하여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미국도 석·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지만, 다른나라와는 달리 희망 최종학력이 모든 학력단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하루 평균 공부시간(학과수업 제외)은 중국이 가장 길고 다음이 한국이며 미국·일본은 양국에 비해 짧은 수준이었다. 하루에 2시간 또는 그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은 중국·한국이 과반수를 상회하여(84.1%, 55.3%), 미국·일본(31.8%, 28.4%)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학교생활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요인은 한국은 친구(“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와 성적(“좋은 성적으로 받았을 때”)의 두가지뿐이며, 일본은 친구 하나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미국은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좋아하는 수업을 들을 때” “개성·특기를 발휘할 때” 등)을 통해 만족·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급에서 인기있는 사람으로는 네 나라 모두 농담 잘하는 친구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인기도가 낮은 친구의 응답결과는 동아시아 3국과 미국의 응답결과가 상이하였다. 한국·중국·일본은 교사에게 반항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가 별로 인기가 없는 반면, 미국은 정의감이 있거나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의 인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하는 4가지 역할(학생회 회장, 학급 반장, 문화제 실행위원장, 클럽활동반 리더)을 남자·여자중 어느쪽이 담당하는지를 조사하였다(남녀공학·혼성학급 대상). 그 결과 한국은 4가지 모두, 일본은 3가지를 남자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여, 남녀가 동등한 미국, 여자가 우위인 중국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클럽활동 참여정도는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클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한국은 43.8%에 불과하여 과반수를 상회하는 다른나라에 크게 못미쳤다(미 93.2%, 일 72.3%, 중 68.9%). 클럽활동의 종류별로는 다른나라는 모두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과반수를 넘는 반면, 한국은 2할 수준에 머물렀다(25.4%).

교우·이성관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친구유형은 네 나라가 모두 상이하였다(한국: “믿을 수 있는 사람”, 중국: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일본: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미국: “농담을 잘 하는 사람”).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보면, 다른나라 청소년들은 주로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능력·재미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원만한 대인관계나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중시하였다.

친구와의 교우방식에서는 한국·일본과 중국·미국이 대조적인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려 하는 반면,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거리낌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가까운 친구와도 심리적 거리감을 두려 하는 한국·일본 청소년에 비해 중국·미국 청소년들의 교우방식에서는 친구와의 강한 정신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미국이 가장 많았고(61.4%), 일본과 한국이 중간수준이었고(50.3%, 46.9%), 중국이 가장 적었다.(29.7%). 미국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직접 만나서 고백한 반면(62.3%), 한국·중국은 간접적인 방식(편지, 전화, 이메일, 인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 특성·역할관계

남성의 이미지로서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일본·미국(“난폭하다”)과 중국(“농담을 잘 한다”)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응답률의 순위별 분포를 보면,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전형적인 남성성(“투지가 있다” 등)이 강조되는 반면, 성중립적 이미지(“농담을 잘한다” “정열적이다”...)의 응답률은 낮은 편이다. 여성의 이미지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각국마다 상이하였다(한: “수다스럽다”, 중·일: “귀엽다”, 미: “상냥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일본은 전형적인 여성성(“얌전하다” 등)이 강조되는 반면, 중국·미국은 성중립적 이미지(“투지가 있다” “정열적이다” 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하여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찬성하였지만 일본은 반대가 다수였고 한국은 중간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동성·이성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면, 중국·미국은 양성 모두의 성별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긍정일치형이 과반수를 넘지만(70.1%, 60.1%), 일본은 양성 모두의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부정일치형이 다수였고(56.3%), 한국은 두 유형의 분포가 비슷하였다(46.1%, 45.3%). 한편 성별로는 다른나라는 모두 남녀간의 태도가 일치하였지만(중·미: 긍정일치형, 일: 부정일치형), 한국은 상반되는 태도(남: 긍정일치형, 여: 부정일치형)를 나타내었다.

전통적인 성 역할관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중국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이었다. “남성은 여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청소년은 한국·일본(70.6%, 70.2%)이 중국·미국

(85.5%, 94.5%)보다 훨씬 적었으며, 여성의 가사전념에 대한 찬성응답률은 한국·일본·미국(9.3%, 11.1%, 9.4%)이 중국(23.2%)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한편 여성(주부)의 육아전념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청소년들의 찬성응답률(31.7%, 27.2%)이 한국(21.0%)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성별 역할과 관련된 생활현실과 의식의 불일치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성·여성 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나라 모두 남성을 택한 청소년이 다수였지만,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적었다(한 33.9%, 중 47.6%, 일 41.3%, 미 39.7%). 응답률의 분포를 비교하면, 중국은 남자, 미국은 여자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중국은 남녀 모두 남자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한국·일본·미국은 동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청소년이 다수였다.

부모로부터 남자(여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52.3%), 한국·일본(45.5%, 34.8%)이 그 다음이며, 미국이 가장 적었다(18.9%). 네 나라 모두 여자가 지적받은 경험이 더 많았지만, 특히 경험자 비율에서 한국·일본의 성별 차이가 현격하였다. 한편, 남성의 약화현상(“남자가 약해졌다”)에 대하여 긍정하는 청소년은 중국·미국(모두 56.0%)·한국(51.4%)이 일본(37.3%)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결혼관에 있어서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즉, 혼전순결에 대하여 중국·한국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찬성한 반면(76.3%, 74.8%), 일본의 찬성응답률은 3할 수준(34.3%)으로서 미국(56.9%)보다도 낮았다. 결혼의 당위성(필요성)에 찬성하는 청소년은 중국이 유일하게 과반수를 상회하였고(51.6%), 다음으로 한국(36.7%), 미국(20.3%), 일본(17.9%)의 순이었다. 한편, “돈많은 배우자가 좋다”는 의견에 찬성한 청소년은 한국이 가장 많았고(74.3%), 일본도 과반수를 상회하였지만(58.7%), 중국은 3할 수준에 머물렀다(33.1%). 특히 한국과 일본은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었다.

일상활동 · 생활의식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활동의 빈도를 모두 7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자주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수치는 “일주일에 2~3회”와 “거의 매일”의 응답률을 합산한 수치임).

먼저 친구 · 이성과의 접촉빈도는 한국 · 미국 · 일본에 비해 중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밖에서 친구와 자주 만나는 청소년은 한국이 가장 많았고(49.6%, 미 33.1%, 일 30.1%, 중 5.2%), 전화 · 이메일로 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81.5%, 한 · 미 68%, 중 27.9%). 한편 이성과 자주 데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미국이 4할에 달하여(41.1%), 한국 · 일본 · 중국(12.7%, 10.8%, 4.8%)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과의 대화빈도는 일본 · 미국 청소년들(88.8%, 84.6%)이 한국(67.3%) · 중국(52.6%)보다 더 잦은 편이었다.

매체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인쇄매체에 대한 한국 · 미국 청소년들의 기피 현상이 특징적이다. 즉, 독서를 자주 청소년은 중국이 과반수를 상회한 반면(54.1%), 한국 · 일본은 3할 수준에 머물렀고(34.4%, 31.6%), 미국이 가장 적었다(22.4%). 신문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반수를 넘는 중국 · 일본(64.8%, 51.9%)과 3할대에 머문 한국 · 미국(38.8%, 30.9%)으로 뚜렷하게 대비된다. 반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는 청소년은 한국 · 미국이 4할 수준에 달하였고(39.5%, 39.2%), 중국 · 일본은 소수에 불과하였다(10.9%, 6.0%).

문제행동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모두 12가지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먼저 생활예절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3국과 비교하여 미국 청소년들이 관용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전철내에서의 소란행위(“큰 소리로 얘기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수업중에 이메일 주고받기에 대하여 동아시아 3국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미국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무방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철에서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각국의 응답률이 큰 차이는 없었지만,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성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보수적인 반면, 일본 청소년들이 매우 관용적인 점이 주목된다. 즉, 부모·교사에 대한 반항행동에 대하여 한국은 대다수가, 중국·미국은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본은 무방하다는 응답률이 7할을 상회하였다. 무단결석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중국·한국에 비해, 일본은 미국보다도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절도·마약복용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3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절도·마약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동아시아 3국은 모두 8~9할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각각 6할(절도), 5할(마약복용)에 머물렀다. 매춘에 대해서는 중국·한국에 비해 일본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범죄형 문제행동에 대하여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중국이 가장 보수적이었고, 한국이 중간이었으며, 일본이 상대적으로 관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의 자아·인생관을 “도전·개혁의식” “안분·자족의식”의 두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현실에 도전하고 개혁하려는 의식은 미국·중국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이 중간이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현실에 안주하고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은 한국·일본 청소년들이 미국·중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신 및 귀속집단(국가·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각국 청소년들은 뚜렷하게 대비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자기자신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미국이 절대다수인 반면(92.5%), 중국은 절반을 조금 넘고(58.1%), 한국·일본은 과반수에 못미쳤다(47.3%, 35.4%). 자국 국민으로서의 만족응답률은 미국과 중국이 9할에 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95.6%, 91.1%), 일본이 그 다음이었으며(88.6%), 한국이 가장 낮았다(66.7%). 자기부모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청소년들의 만족응답률(92.3%, 91.9%)이 한국·일본(87.4%, 84.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 논의와 토론

한국의 학교교육은 학업에만 편중되어 다른나라에 비해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클럽활동이 매우 취약하다. 학교생활에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청소년도 중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공부량(학교수업 제외)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과반수가 하루에 2시간 또는 그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3할 안팎에 머물렀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은 학교교육 자체가 대학진학을 위한 시험준비와 학과공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⁵.

학교 클럽활동은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지식교육 위주의 학과수업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클럽활동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클럽활동 참여율은 다른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나라에 비해 한국은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도 학과공부에 방해가 되고 대학진학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학과공부 위주의 획일적인 한국 학교교육의 모습은 학교생활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으로 받았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만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지만(응답률 과반수 기준),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이밖에도 다

²⁵ 일본 청소년대책본부가 각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996)에 따르면, “과도한 시험공부 때문에 자녀들의 생활이 학과공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국은 11.7%에 머문 반면, 한국은 85.2%, 일본은 70.1%에 달한다(靑少年対策本部, 1996).

양한 요인(“개성·특기를 발휘할 때” “좋아하는 수업을 들을 때” “학문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등)을 통해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은 이미 몇차례의 선행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²⁶.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그 주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고교시절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가 단순한 대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클럽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업과 관련한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현상인식은 중국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다. 기대교육수준이나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현실여건을 감안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 청소년들은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동아시아 3국 청소년들의 희망 최종학력은 “석·박사 학위 취득”(중국, 60.3%), “대학교”(한국, 56.0%), “고졸 또는 전문대졸”(일본, 50.2%)로 뚜렷하게 대비된다. 실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희망 최종학력은 매우 현실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²⁷. 양국 청소년들은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을 얻

²⁶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정희옥 외(1997), 윤철경 외(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靑少年対策本部(1999) 등이 있다. 세 조사 모두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²⁷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2003년 일반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78.3%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통계연보).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희망 최종학력을 대학 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7.3%(<표 II-4> 참조)로서 실제 진학률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청소년들의 기대교육수준은 자국사회의 현실보다는 그들의 희망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⁸.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양국 청소년들의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간층이 비대하고 상/하위권이 균등한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상위권/중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하여 하위권이 매우 드문 비현실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한국·일본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은 공부의 양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그림 II-3 참조]). 즉, 현재의 성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곧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일본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려 한다면, 중국 청소년들은 실제보다 낙관적이고 장래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조직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려 하는 한국·일본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현실은 낙후되었지만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중국 청소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특이한 개성이나 능력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우방식에 있어서도 친구와 강한 일체감을 느끼는 중국·미국 청소년들보다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일본 청소년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²⁸ 중국 청소년들의 높은 기대교육수준은 한 자녀 가구가 보편화된 중국사회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생활수준 이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친구유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나라의 응답결과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중국: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일본: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미국: “농담을 잘 하는 사람”). 또한 자기 말을 잘 들어주거나 주위사람들을 배려하는 친구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부를 잘 하거나, 개성이 있고, 유행에 민감한 친구에 대한 선호도는 중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귄다에 있어 특이한 개성이나 능력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의 교우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려 하는 반면,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거리낌 없이 터놓고 얘기하고 친구를 위하여 정성과 희생을 다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다. 가까운 친구와도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한국·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강한 정신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 개성·다양성보다는 적응과 조화를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이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교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소극적이고 그 빈도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혼전순결 문제에 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매우 보수적인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미국 청소년들 중 약 6할이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있고, 4할 가량이 자주 데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절반 가량이 사랑을 고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주 데이트를

즐기는 청소년은 1할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 청소년들은 직접 만나서 고백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지만,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간접적인 방식(편지, 전화, 이메일, 인편 등)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미국사회에서 청소년 이성교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소수의 청소년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동아시아국가인 중국은 사랑 고백 경험이나 데이트 빈도에서 한국·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양성관계의 평등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자유로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중국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이었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각국 사회의 성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사회일수록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혼전순결 문제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반응은 이외의 결과를 낳았다. 한국 청소년들은 혼전순결에 대하여 중국과 더불어 가장 보수적인 반면, 일본 청소년들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성 의식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경험과 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 청소년들의 개방적인 순결관이 실제 생활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보수적인 성 의식은 유교적 성윤리관이 의연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적인 성별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관에 대하여 중국·미국 청소년들보다 강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양성관계의 측면에서 중국·미국은 실제적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라

고 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단계에 있다. 이것은 학교내 역할의 성별 분포에 대한 본 조사의 응답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하는 4가지 역할(학생회 회장, 학급 반장, 문화제 실행위원장, 클럽활동반 리더)을 각각 남자·여자 중 어느쪽이 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남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미국은 남녀의 담당비율이 동일하였고, 중국은 여자가 맡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은 양성관계의 현실은 각국 청소년들의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적극적·능동적인 남성과 소극적·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미국 청소년들의 성별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관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태도는 실제 생활현실·의식과는 대조적인 점이 주목된다. 즉, “남자(여자)는 남자(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반대응답률은 중국·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과 더불어 그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미국 청소년들은 중국·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인쇄매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컴퓨터·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국의 정보화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국 청소년들의 매체관련 일상활동 빈도를 보면, 독서를 자주 하는 청소년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한국·일본이 중간이었으며, 미국이 가장 적었다. 신문을 자주 읽는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미국이 중국·일본보다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인터넷 채팅빈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한국·미국은 4할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6할, 일본은 8할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관련 일상활동 빈도의 차이는 각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보급과 더불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²⁹.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매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남학생의 경우 이메일은 이성교제의 수단으로서 편지·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II-11] 참조). 또한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중독은 인터넷의 활성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조사의 인터넷 채팅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인터넷 보급에서 앞서 있는 한국·미국 청소년들이 중국·일본에 비해 높은 중독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20> 참조).

인터넷의 보급·확산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정보화의 최첨단에 위치해 있고, 그 주된 이용자는 청소년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²⁹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정보매체로서 TV·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기능을 대체해 가고 있는 경향은 다음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 조사에서 자신의 주요 정보입수원이 PC·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청소년(15~19세)은 1.3%에 머문 반면(방송 70.9%, 신문·잡지 13.0%), 2003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터넷의 응답률이 69.0%에 달하여 TV·라디오(18.5%), 신문/잡지(3.5%)의 응답률을 압도하였다(통계청, 1997; 이종원·이경상·김종길, 2003: 123).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대체로 일본보다는 보수적이지만 중국보다는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부모·교사)에 반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미국보다도 관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문제행동의 다양한 유형(예절형·반항형·풍속형·범죄형)에 대한 각국 청소년들의 평가결과에서는 대체로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3국 청소년들이 미국보다 보수적(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동아시아 3국 중에서 한국은 가장 보수적인 중국과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권위와 관련한 반항형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부모·교사에 반항하는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좋지 못한 행동이다”)한 청소년이 한국은 8할에 달하여 중국(7할)은 물론, 미국(5할)·일본(2할)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나라에 비해 부모·교사의 권위에 대하여 높은 존중의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부모-자녀관계·학교생활과 관련한 선행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많은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가족)와의 대화빈도도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중국·미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현실생활 전반에 대한 높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사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 더불어 가정·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일본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모두 급격한 사회변화와 생활경험의 차이로 인한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세

대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갈등의 현실적인 표출방식과 전개양상은 매우 다를 것임을 본 조사결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⁰.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자기자신 및 귀속집단(국가·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며, 현실에 도전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일본 청소년들의 자아·귀속집단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현실에 안주하고 경쟁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아·인생관 및 귀속집단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한국·일본과 중국·미국 청소년들의 응답경향이 뚜렷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한국·일본에 비해 자기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모·국가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현실에 도전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인생관으로 연결된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도전·개혁의식의 척도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국·미국이 한·일 양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일본 청소년들은 자기자신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부모·국가에 대한 만족도도 중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개혁하기 보다는 경쟁을 기피하고 쉽게 체념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각국 청소년들의 자아관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이 이와 같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시론적인 차원에서 다음에서 논의할 각국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그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³⁰ 예컨대, 정희욱 외(1997)의 조사에서 자신이 “부모님께 잘 반항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일본은 과반수에 달한 반면(54.0%), 한국은 37.5%에 머물렀다. 부모와의 갈등을 반항으로 표출하는 빈도가 높은 일본 청소년들에 비해 억누르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이종원, 2003: 81).

조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생활·의식의 다양한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압축성장을 경험한 양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편, 중국·미국 청소년들은 체제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실인식과 높은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생활·의식의 측면에서 다른나라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과 아울러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생활·의식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보편적인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 생활·의식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서구적 산업사회로의 변동을 경험하였다. 급속하게 이루어진 압축성장은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전통과 현대의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두개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에 적응해야만 한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의 산물인 세대간 갈등, 치열한 입시경쟁 등으로 인하여 가정·학교생활 전반에서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생활여건은 한국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성취한 고도성장이 그 주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부정적·소극적 자아인식과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높은 불만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 이행형사회의 심리적 아노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사회에서 성원들은 공동체적 윤리와 사회관계에 의해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서구적 가치관과 사회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인간관계와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는 전통적인 요소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공동체의식을 내면화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함으로써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또한 시장경제 도입단계의 경제성장·사회발전의 국가적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에게 강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부여하게 된다.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혈연·지연에 기반한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의 원리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율적인 사고와 판단하에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 혈연·지연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 성공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중국·미국 청소년들이 체제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고성혜 · 이용교(1996). 청소년들의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권이중(1992). 청소년의 이해: 변화하는 세계 속의 청소년. 서울: 문화체육부.
- 김종길(2000). “사이버공간 속의 청소년문화와 정체성”.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맹영임 · 서정아 · 김민(2002). 청소년 대중스타 수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 문옥표 편(1997).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화관광부(2003). 2003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안귀덕 외(1999). 한국 청소년문화: 비교문화적 분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오영태 · 강상욱(1995). 한 · 중 초등학교 학생의 가치관 비교, 인천교대 논문집,
제29집 1호.
- 윤철경 외 4인(2000). 새천년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 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
스 청소년의 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외 3인(200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
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외 3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
발원.
- 이종원(1994).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제5회 세계청년의식조사 결과”. 한국청
소년연구, 제19호.
- _____ (2000). “보론: 청소년 생활 · 의식 국제비교”. 이종원 외 2인, 전
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3). “한국의 청소년: 국제비교를 통해본 생활 · 의식의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편. 2002월드컵에 나타난 국민적 역동성의 이해와
해석. 서울: 하우.
- 이종원 · 유승호(2003).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 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2003). 월드컵현상을 통해본 신세대의 사회 · 문화적 정
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 주동범 · 서정아(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
소년개발원.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정원식 외 5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희욱·이춘화(1999). 청소년의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 한국·중국·일본·미국 청소년의 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희욱·전경숙·권오실(1997). 한·중·일 청소년의식 비교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원기·전경숙·김창남(2000).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1997). 사회통계조사. 서울: 통계청
- _____ (2003).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한국갤럽조사연구소편(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7).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2). 청소년문화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정규(1979). 한국학사의 의식구조.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Helve, Helena(2000).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Sengoku, Damotsu(2000). “새천년의 일본 청소년 문화와 의식”,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Sun, Yunxio(2000). “중국의 사회변화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日本青少年研究所(1991). 日本・米國・韓國 中學生の生活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1998). 中學生・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1999). 21世紀の夢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0). 中學生・高校生の日常生活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1). 新千年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_____ (2002). 高校生の未来意識に関する調査. 東京: 日本青少年研究所.
- 青少年対策本部(1995). 第5回世界青年意識調査細部分析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_____ (1996). 子供と家族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_____ (1999). 世界の青年との比較からみた日本の青年- 第6回世界青年
意識調査報告書. 東京: 総務庁 青少年対策本部.
- ベネッセ教育研究所(1990). 都市社会の子どもたち- 国際比較調査(2). 인터넷
자료(<http://www.crn.or.jp/library/hikaku/vol109/head.htm>)
- _____ (1992). 都市社会の子どもたち- 国際比較調査(3). 인터넷자료(h
[ttp://www.crn.or.jp/library/hikaku/vol124/head.htm](http://www.crn.or.jp/library/hikaku/vol124/head.htm))
- _____ (1994). 第4回国際教育シンポジウム報告書- 家族の中の子ども
たち. 東京: ベネッセ教育研究所

부록 1: 조사표

■ 일 본

- 問1 性別 : 1. 男 2. 女
- 問2 学年 : 1. 高1 2. 高2 3. 高3
- 問3 あなたの学校は公立ですか？私立ですか？
1. 公立 2. 私立
- 問4 あなたの学校は普通高校ですか？職業高校ですか？
1. 普通高校 2. 職業高校
- 問5 あなたの成績は、クラスの中のどのあたりですか？

	上・中の上	中	中の下・下
1. 国語	1	2	3
2. 数学	1	2	3
3. 外国語	1	2	3
4. 全教科の平均	1	2	3

- 問6 あなたは、学校教科以外の活動（部活やクラブ活動）をしていますか？次の中からあ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積極的にスポーツ系の部（クラブ）活動に参加している
 2. 積極적ではないが、スポーツ系の部（クラブ）活動に参加している
 3. 積極的に文科系の部（クラブ）活動に参加している
 4. 積極적ではないが、文科系の部（クラブ）活動に参加している
 5. 部活（クラブ活動）をやめたいと思っている
 6. どの部活（クラブ活動）にも参加していない
- 問7 あなたのクラスには、男子生徒と女子生徒の割合はどのぐらいですか？
1. ほぼ全員男子
 2. 男子が3分の2
 3. 男女同じぐらい
 4. 男子が3分の1
 5. ほぼ全員女子
- 問8 あなたのクラスの人気者はどういうタイプですか？あ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冗談がうまい
 2. 勉強ができる

* 한국의 조사표는 부록 2: 조사결과 단순집계표를 참고할 것

- | | |
|-----------------|------------------|
| 3. 自分の意見をはっきり言う | 4. 積極的 (活動的) |
| 5. 正義感が強い | 6. やさしい |
| 7. 弱い人を助ける | 8. スポーツができる |
| 9. 先生のお気に入り | 10. 個性的 |
| 11. 腕力が強い | 12. 表に出ないでかげで仕切る |
| 13. かげで悪いことをする | 14. 先生に反抗する |
| 15. 流行に敏感な | 16. その他 () |

問9 あなたの学校やクラスでは次の役は男性と女性のどちらがなっていますか？

	男子	女子
1. 学校委員長	1	2
2. 生徒会会長	1	2
3. 文化祭の実行委員長	1	2
4. クラス委員長	1	2
5. 加入している部 (クラブ) 活動のリーダー	1	2

問10 あなたのクラスでは、次のことについて、男子と女子はどちらが多いですか？

	男子が多い	女子が多い	どちらも いえない
1. 自分の目標をもって頑張っている人	1	2	3
2. クラスのリーダーになっている人	1	2	3
3. クラスの人気者	1	2	3
4. 先生によく反抗する人	1	2	3
5. スポーツ活動に熱心な人	1	2	3
6. 文化活動に熱心な人	1	2	3
7. 他人の面倒をよくみる人	1	2	3
8. 読書が好きな人	1	2	3
9. 政治や経済などに関心のある人	1	2	3
10. 授業中、よく手を挙げ、質問をする人	1	2	3
11. 校則をよく守らない人	1	2	3
12. 流行に敏感な人	1	2	3
13. 喧嘩が強い人	1	2	3
14. 困難なことに挑戦する人	1	2	3
15. クラスの活動に関心がない人	1	2	3

問11 あなたが学校で最も充実していると感じる時はどんな時ですか？ (いくつでも)

- | | |
|-----------------|------------------|
| 1. 好きな授業を受けている時 | 2. 生徒会活動などをしている時 |
| 3. 親しい友人と一緒にいる時 | 4. 部活動をしている時 |
| 5. 先生に褒められた時 | 6. よい成績を取った時 |
| 7. 文化祭、運動会の時 | 8. 勉強に打ち込んでいる時 |

9. 自分の個性や特技を生かした時

10. 学問の楽しさを発見した時

11. その他（具体的に ）

12. 充実していると感じた時はない

問12 あなたにとって、次の項目は男のイメージがしますかそれとも女のイメージがしますか？

	男らしい	女らしい	区別 できない	わからない
1. 元気な	1	2	3	4
2. やさしい	1	2	3	4
3. 意地の悪い	1	2	3	4
4. 情熱的な	1	2	3	4
5. かわいい	1	2	3	4
6. 冗談のうまい	1	2	3	4
7. 不良っぽい	1	2	3	4
8. 朗らか	1	2	3	4
9. 責任感の強い	1	2	3	4
10. 頑張りや	1	2	3	4
11. はっきり主張する	1	2	3	4
12. 気が変りやすい	1	2	3	4
13. わがまま	1	2	3	4
14. おしゃべり	1	2	3	4
15. 頼りになる	1	2	3	4
16. 積極的	1	2	3	4
17. おとなしい	1	2	3	4
18. リーダシップのある	1	2	3	4
19. 乱暴な	1	2	3	4
20. 創造性がある	1	2	3	4

問13 あなたにとって、強い生徒とはどういうイメージですか？

	よく 当てはまる	まあ 当てはまる	あまりそう 思わない	全くそう 思わない
1. 積極的	1	2	3	4
2. はっきり自分の意見を言う	1	2	3	4
3. 勇気のある	1	2	3	4
4. 冒険心がある	1	2	3	4
5. 頼りになる	1	2	3	4
6. やさしい	1	2	3	4
7. 不良っぽい	1	2	3	4
8. リーダシップのある	1	2	3	4
9. 正義感がある	1	2	3	4

10. 弱い人を助ける	1	2	3	4
11. 責任感が強い	1	2	3	4
12. 忍耐力がある	1	2	3	4

問14 もし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なら、あなたは男として生ま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かそれとも、女として生ま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か？

1. 男として生まれたい
2. 女として生まれたい
3. どちらでもよい
4. わからない

問15 あなたは親に男（女）らしくないと言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よくある
2. 時々ある
3. あまりない
4. 全くない

問16 「男子が弱い」と言われるようです。あなたの高校生活でそう感じますか？
また、中学校と小学校の時代はどうでしたか？

(1) 現在の感じ

1. 全くそう思う
2. まあそう思う
3. 余りそう思わない
4. 全くそう思わない

(2) 中学校の時の感じ

1. 全くそう思う
2. まあそう思う
3. 余りそう思わない
4. 全くそう思わない

(3) 小学校の時の感じ

1. 全くそう思う
2. まあそう思う
3. 余りそう思わない
4. 全くそう思わない

SQ (1)で「全くそう思う」と「まあそう思う」と答えた者のみ：どうしてそう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もの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消極的な態度だから
2. 自分の意見をはっきり言わないから
3. 行動しないから
4. 何となく陰気だから
5. おとなしいから
6. 頑張らないから
7. 意気地がないから
8. 親の言う通りにするから
9. 先生の言うとおりにするから
10. 活動で元気がないから
11. 無気力だから
12. 責任を果たそうとしないから
13. マスコミは女子生徒のことばかり取り上げるから

問17 あなたは、いままで異性に愛の告白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ある
2. ない

(「ある」と答えた者のみ) どういうしかたで告白しましたか？

1. 手紙で 2. 電話で 3. メールで
4. 会って直接話した 5. 友人など他人を介して 6. その他

問18 あなたは、いままで異性から愛の告白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か？

1. ある 2. ない

(「ある」と答えた者のみ) どういうしかたで告白されましたか？

1. 手紙で 2. 電話で 3. メールで
4. 会って直接話した 5. 友人など他人を介して 6. その他

問19 次の意見について、あなたはどのように思いますか？

	全く そう思う	まあ そう思う	あまりそう 思わない	全くそう 思わない
1. 結婚前は純潔を守るべきである	1	2	3	4
2. 女性は結婚したら、仕事をやめ、 家庭に専念すべきである	1	2	3	4
3. 女性は子どもが生まれたら、仕事を やめ、育児に専念すべきである	1	2	3	4
4. 仕事より家庭を大事にしたい	1	2	3	4
5. 将来、結婚や育児より自分の趣味 や生き方を大事にしたい	1	2	3	4
6. 社会の一員として認められるには、 やはり結婚することが必要だ	1	2	3	4
7. 個人がそれぞれ生活できれば、必 ずしも結婚しなくてもいい	1	2	3	4
8. 結婚生活を継続させる為には、夫 婦お互いに我慢が必要である	1	2	3	4
9. 女は女らしくすべきだ	1	2	3	4
10. 男は男らしくすべきだ	1	2	3	4
11. 男は女を守るべきである	1	2	3	4
12. 仕事がよくできる男性に魅力を感じ る	1	2	3	4
13. 仕事がよくできる女性に魅力を感じ る	1	2	3	4
14. 結婚するなら金持ちがいい	1	2	3	4

問20 あなたは友達付き合いでどういうタイプの人と付き合いやすいと思いますか？あてはまるところにいくつでも○をつけてください。

1. はっきり自分の意見を言う人 2. 自分の話をよく聞いてくれる人
3. 勉強がよくできる人 4. 個性のある人

- | | |
|------------------|-----------------|
| 5. 同じ趣味を持っている人 | 6. やさしくしてくれる人 |
| 7. よく冗談を言う人 | 8. 頼りになる人 |
| 9. 流行に敏感な人 | 10. 活発で明るい人 |
| 11. まわりによく気を使う人 | 12. 他人の面倒をよく見る人 |
| 13. 相手をリードしてくれる人 | 14. 正義感のある人 |
| 15. 責任感の強い人 | 16. 自分に甘えてくれる人 |
| 17. 努力する人 | 18. まじめな人 |

問21 あなたは、友だちとどのような付き合い方をしていますか？次のそれぞれの項目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非常に そう思う	まあ そう思う	あまりそう 思わない	全くそう 思わない
1. お互いに相手に甘えすぎない	1	2	3	4
2. 自分を犠牲にしても相手に尽くす	1	2	3	4
3. お互いのプライバシーに入らない	1	2	3	4
4. お互いの心を打ち明けあう	1	2	3	4
5. 相手の考えていることに気を使う	1	2	3	4

問22 高校生の次の行動について、あなたはどのように思いますか？

	よくない こと	本人の 自由	悪いこと ではない	よいこと
1. 電車の中で大声でしゃべる	1	2	3	4
2. 電車の中で携帯電話を使う	1	2	3	4
3. 電車の中で化粧する	1	2	3	4
4. 電車やバスなどで年寄りに席を譲らない	1	2	3	4
5. 地面や電車の床に座り込んでいる	1	2	3	4
6. 授業中にメールのやりとりをする	1	2	3	4
7. 先生に反抗する	1	2	3	4
8. 親に反抗する	1	2	3	4
9. 出会いサイトを利用する	1	2	3	4
10. 過激なファッションをする	1	2	3	4
11. 覚せい剤や麻薬を使う	1	2	3	4
12. 学校をずる休みする	1	2	3	4
13. スーパーやコンビニで万引きする	1	2	3	4
14. 売春など性を売ったり買ったりする	1	2	3	4

問23 あなたは次のそれぞれ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それぞれの項目の該当するところ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く そう思う	まあ そう思う	あまりそう 思わない	全くそう 思わない
1. 偉くなると責任が多くなるから嫌だ	1	2	3	4
2. 将来自分の会社を作りたい	1	2	3	4
3. やりたいことにいくら困難があっても挑戦してみたい	1	2	3	4
4. 将来自由気ままでいたいので、正式な就職をしたくない	1	2	3	4
5. クラスのリーダーになりたい	1	2	3	4
6. 流行に遅れないようにしたい	1	2	3	4
7. 競争のない社会に生まれたい	1	2	3	4
8. 食べていける収入があればのんびりと暮らしていきたい	1	2	3	4
9. 全体としてみれば、私は自分に満足している	1	2	3	4
10. 私は困難があると、すぐ諦めるほうである	1	2	3	4
11. 私は目立ちたいほうである	1	2	3	4
12. 私は人に負けたくないほうである	1	2	3	4

- 一 性别 : 1. 男 2. 女
- 二 年级 : 1. 高一 2. 高二 3. 高三
- 三 你们学校属于公立学校还是私立学校?
1. 公立 2. 民办公助 3. 私立
- 四 你们学校属于普通高中还是职业高中?
1. 普通高中 2. 职业高中
- 五 你的学习成绩在班上属于

	上•中上	中	中下•下
1. 语文	1	2	3
2. 数学	1	2	3
3. 外语	1	2	3
4. 科综合平均	1	2	3

- 六 你平时参加课外活动吗? (可选多项)
1. 积极参加体育类课外小组活动 2. 参加体育类课外小组活动, 但不是很积极
3. 积极参加文娱类课外小组活动 4. 参加文娱类课外小组活动, 但不是很积极
5. 我想退出课外活动小组 6. 没有参加任何课外小组活动
- 七 你们班的男女生比例大致为
1. 基本都是男生 2. 男生占三分之二 3. 男女生各占一半
4. 女生占三分之二 5. 基本都是女生
- 八 你们班里人气度高的同学都有哪些特点? 可选多项。
1. 幽默 2. 学习好 3. 敢于发表自己的意见
4. 积极主动 5. 正义感强 6. 亲切
7. 善于助人 8. 擅长体育 9. 老师喜欢的学生
10. 有个性 11. 力气大 12. 在背后出主意
13. 背着人干坏事 14. 与老师作对 15. 对流行敏感
- 九 下列干部在你们学校或班级是男生还是女生?

	男生	女生
1. 学生会主席	1	2
2. 校团委书记	1	2
3. 班长	1	2
4. 团支书	1	2
5. 学习委员	1	2

十 下列类型的人在你们班上男生多还是女生多？

	男生多	女生多	说不清
1. 有自己的目标并为之奋斗者	1	2	3
2. 班干部	1	2	3
3. 班级里有人缘的同学	1	2	3
4. 经常和老师作对的同学	1	2	3
5. 喜欢体育活动的同学	1	2	3
6. 喜欢文娱活动的同学	1	2	3
7. 善于体贴照顾他人的同学	1	2	3
8. 喜欢看书的同学	1	2	3
9. 对政治和经济感兴趣的同學	1	2	3
10. 上课积极发言和提问的同学	1	2	3
11. 不遵守校規的同学	1	2	3
12. 对流行敏感的同学	1	2	3
13. 吵架厉害的同学	1	2	3
14. 不怕困难勇于挑战的同学	1	2	3
15. 不关心班级活动的同学	1	2	3

十一 你在学校什么时候感到最充实？ 可选多项。

- | | |
|-----------------|-----------------|
| 1. 上自己喜欢的课的时候 | 2. 参加班级活动的时候 |
| 3. 和好朋友在一起的时候 | 4. 参加课外小组活动的时候 |
| 5. 受到老师表扬的时候 | 6. 取得好成绩的时候 |
| 7. 校运动会的时候 | 8. 钻研学习的时候 |
| 9. 自己的特长得到发挥的时候 | 10. 发现了学习的乐趣的时候 |
| 11. 其它 | 12. 没有感到充实 |

十二 对你来说， 以下性格更接近男生的特点还是女生的特点？

	男生	女生	难以区别	不清楚
1. 主动	1	2	3	4
2. 体贴关心他人	1	2	3	4
3. 心术不良	1	2	3	4
4. 热情	1	2	3	4
5. 可爱	1	2	3	4
6. 幽默	1	2	3	4
7. 品行不端	1	2	3	4
8. 活泼开朗	1	2	3	4
9. 责任感强	1	2	3	4
10. 勤奋刻苦	1	2	3	4
11. 直言不讳	1	2	3	4
12. 缺乏恒心	1	2	3	4

13. 任性	1	2	3	4
14. 啰嗦	1	2	3	4
15. 可靠	1	2	3	4
16. 积极	1	2	3	4
17. 老实	1	2	3	4
18. 有组织能力	1	2	3	4
19. 粗暴	1	2	3	4
20. 喜欢创新	1	2	3	4

十三 你喜欢和什么类型的朋友相处？可选多项。

- | | | |
|-----------|------------|------------|
| 1. 直言不讳 | 2. 能够听我倾诉 | 3. 学习好 |
| 4. 有个性 | 5. 兴趣相同 | 6. 关心体贴我 |
| 7. 喜欢开玩笑 | 8. 可靠 | 9. 对流行敏感 |
| 10. 活泼开朗 | 11. 很在意周围人 | 12. 善于照顾他人 |
| 13. 善于带头 | 14. 有正义感 | 13. 责任感强 |
| 16. 凡是顺着我 | 17. 刻苦努力 | 18. 认真 |
| 19. 其它 | | |

十四 你和朋友是如何相处的？请在与你情况相近的编号上划“○”。

	完全如此	基本如此	不太符合	完全不是
1. 不迁就对方	1	2	3	4
2. 为朋友甘愿自己受损	1	2	3	4
3. 相互不介入对方的隐私	1	2	3	4
4. 相互倾诉心里话	1	2	3	4
5. 留神对方的想法	1	2	3	4

十五 如有来世，你愿做男还做女？

- | | | | |
|---------|---------|--------|--------|
| 1. 愿做男性 | 2. 愿做女性 | 3. 无所谓 | 4. 说不清 |
|---------|---------|--------|--------|

十六 你父母对你说过“男（女）孩要有男（女）孩*样”“没有”

- | | | | |
|--------|--------|--------|---------|
| 1. 经常说 | 2. 有时说 | 3. 不太说 | 4. 从来不说 |
|--------|--------|--------|---------|

十七 社会上有“如今阴胜阳衰”之说，你觉得在你们学校有这种情况吗？另外，初中和小学阶段又如何？

a. 现在的感觉

- | | | | |
|---------|---------|---------|---------|
| 1. 完全如此 | 2. 基本如此 | 3. 不太符合 | 4. 完全不是 |
|---------|---------|---------|---------|

b. 初中时候的感觉

- | | | | |
|---------|---------|---------|---------|
| 1. 完全如此 | 2. 基本如此 | 3. 不太符合 | 4. 完全不是 |
|---------|---------|---------|---------|

c. 小学时候的感觉

- | | | | |
|---------|---------|---------|---------|
| 1. 完全如此 | 2. 基本如此 | 3. 不太符合 | 4. 完全不是 |
|---------|---------|---------|---------|

SQ 你觉得学校里“阴胜阳衰”的原因是什么？

1. 男生态度大多消极

2. 男生不太发表自己的意见

3. 男生缺乏行动

4. 男生总显得死气沉沉

5. 男生大多老实

6. 男生不够努力

7. 男生缺乏意气

8. 男生爱听从父母

9. 男生爱听从老师

10. 男生对集体活动不积极

11. 男生缺乏朝气

12. 男生缺乏责任心

13. 男生大多让着女生

14. 其他

十八 你觉得什么样的学生强？请在接近你想法的编号上划“○”。

	完全如此	基本如此	不太符合	完全不是
1. 积极主动	1	2	3	4
2. 直言不讳	1	2	3	4
3. 有勇气	1	2	3	4
4. 有冒险精神	1	2	3	4
5. 可靠	1	2	3	4
6. 体贴关心他人	1	2	3	4
7. 品行不端	1	2	3	4
8. 有组织能力	1	2	3	4
9. 正义感强	1	2	3	4
10. 乐于助人	1	2	3	4
11. 责任感强	1	2	3	4
12. 善于忍耐	1	2	3	4

十九 有异性朋友对你表白过吗？

1. 有

2. 没有

他（她）以什么方式向你表白的？

1. 信或纸条

2. 电话

3. 发电子邮件

4. 当面表白

5. 托同学或朋友转达

6. 其它

二十 你向喜欢的异性朋友表白过吗？

1. 有

2. 没有

你是以什么方式向他（她）表白的？

1. 信或纸条

2. 电话

3. 发电子邮件

4. 当面表白

5. 托同学或朋友转达

6. 其它

二十一 对下列意见你的看法如何？请在接近你想法的编号上划“○”。

	完全 如此	基本 如此	不太 符合	完全 不是
1. 结婚之前应该保守贞操	1	2	3	4
2. 女性结婚之后，应该做家庭主妇	1	2	3	4
3. 女性生育之后，应该辞去工作，专心培养孩子	1	2	3	4
4. 家庭比工作重要	1	2	3	4
5. 将来比起结婚育儿我更想注重自己的发展	1	2	3	4
6. 作为社会一员要得到社会的承认，还是需要结婚	1	2	3	4
7. 个人能够生活好的话，不一定要结婚	1	2	3	4
8. 为了维持婚姻生活，夫妻需要相互忍耐	1	2	3	4
9. 女孩应该有女孩样	1	2	3	4
10. 男孩应该有男孩样	1	2	3	4
11. 男性应该保护女性	1	2	3	4
12. 工作能力强的男性有魅力	1	2	3	4
13. 工作能力强的女性有魅力	1	2	3	4
14. 结婚就要找有钱人	1	2	3	4

二十二 对于高中生的下列行为，你如何看待。请在接近你想法的编号上划“○”。

	决不应该	本人的自由	并非坏事	好事
1. 公共场合大声说话	1	2	3	4
2. 在学校使用手机	1	2	3	4
3. 公共汽车上不给老人让座	1	2	3	4
4. 上课期间发短信息	1	2	3	4
5. 与老师作对	1	2	3	4
6. 与家长作对	1	2	3	4
7. 网恋	1	2	3	4
8. 打扮得很另类	1	2	3	4
9. 吸毒	1	2	3	4
10. 旷课	1	2	3	4
11. 偷超市或商店的东西	1	2	3	4
12. 卖淫	1	2	3	4

二十三 下列想法你如何看待，请在接近你想法的编号上划“○”。

	完全 如此	基本 如此	不太 符合	完全 不是
1. 当官责任繁多，所以我不想当官	1	2	3	4
2. 想将来自己开公司	1	2	3	4
3. 对于自己想干的事，不管有多大的困难都想试试	1	2	3	4
4. 将来想无拘无束自由地生活，所以想从事自由职业	1	2	3	4
5. 相当班干部	1	2	3	4
6. 不想落后于时尚	1	2	3	4
7. 想生活在没有竞争的社会	1	2	3	4
8. 只要够吃够穿，就想悠闲地生活	1	2	3	4
9. 总的来说我对自己感到满意	1	2	3	4
10. 一有困难我马上就灰心作罢	1	2	3	4
11. 我喜欢受人注目	1	2	3	4
12. 我不服输	1	2	3	4

Q1 Your sex

1. Male 2. Female

Q2 Your grade

1. Tenth grade 2. Eleventh grade 3. Twelfth grade

Q3 Is your high school public or private ?

1. Public 2. Private

Q4 Is your high school an academic(regular) school ?

1. Academic 2. Vocational

Q5 Approximately how are your grades ranked in your class ?

	Above average/ substantially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substantially average
a. English	1	2	3
b. Mathematic	1	2	3
c. All the subjects on average	1	2	3

Q6 Are you engag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I actively take part in an athletic team
2. I take part in an athletic team, but not in an active manner
3. I am actively involved in a cultural(i. e. non-athletic) group
4. I am involved in a cultural(i. e. non-athletic) group, but not in an active manner
5. I want to quit an extracurricular activity
6. I am not involved in any extracurricular activity

Q7 What is the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pupils in your class ?

1. Almost entirely male
2. Two-thirds are male
3. About 1 to 1
4. Two-thirds are female
5. Almost entirely female

Q8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 students in your class ?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Has a good sense of humor
2. An excellent student
3. States his/her opinion clearly

4. A self-starter
5. Has a good sense of justice
6. Kind and gentle toward others
7. Helps those less fortunate than he/she
8. A good athlete
9. Liked by his/her teachers
10. Unique and stands out in some way
11. Physically strong and muscular
12. Keeps a low profile, works behind the scene
13. Does something bad when he/she thinks others do not notice
14. Talks back to a teacher
15. Be fashionable

Q9 At your school or in your class, who takes on the following roles, male or female ?

	Male	Female
a.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1	2
b. Head of the cultural fair organizing committee	1	2
c. Class president	1	2
d. Leader of an extracurricular activity	1	2

Q10 On the following types of students, who are more dominant in your class, male or female students ?

	Male	Female	Neither/ not sure
a. Someone who strides toward his/her goal(s)	1	2	3
b. A leader in class	1	2	3
c. Popular person in class	1	2	3
d. Someone who often talks back to his/her teacher	1	2	3
e. An active athlete	1	2	3
f. Someone who is active in cultural activity	1	2	3
g. Someone who listens to and takes care of others' needs	1	2	3
h. Someone who likes to read	1	2	3
i. Someone interested in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1	2	3
j. Someone who actively participates/asks questions in class	1	2	3
k. Someone who does not obey school rules	1	2	3
l. Someone who keeps up with the latest fad	1	2	3

m. Someone who is strong and often prevails in fights	1	2	3
n. Someone who takes on a difficult tasks	1	2	3
o. Someone who is indifferent to joint activities in his/her class	1	2	3

Q11 At school, when do you feel most satisfied and enjoy yourself ?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When I take a class that I like
2. When I engage in student council activities
3. When I am with close friends
4. When a teacher praises me
5. When I get a good grade
6. When I study hard
7. When I do something that suit my special interests or skills
8. When I discover the joy of learning

Q12 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masculine or feminine to you ?

	Masculine	Feminine	Neither	Not sure
a. Vigorous	1	2	3	4
b. Gentle	1	2	3	4
c. Malicious	1	2	3	4
d. Passionate	1	2	3	4
e. Cute	1	2	3	4
f. Have a good sense of humor	1	2	3	4
g. Go astray	1	2	3	4
h. Cheerful	1	2	3	4
i. Responsible	1	2	3	4
j. A hard worker	1	2	3	4
k. Assertive and talks straight	1	2	3	4
l. Whimsical	1	2	3	4
m. Self-centered	1	2	3	4
n. Talkative	1	2	3	4
o. Dependable	1	2	3	4
p. Proactive	1	2	3	4
q. Quit	1	2	3	4
r. Have leadership skills	1	2	3	4
s. Violent	1	2	3	4
t. Creative	1	2	3	4

Q13 In your opinio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strong student ?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Active and takes initiative	1	2	3	4
b. States his/her opinions clearly	1	2	3	4
c. Courageous	1	2	3	4
d. Adventure	1	2	3	4
e. Dependable	1	2	3	4
f. Kind and gentle	1	2	3	4
h. Has leadership skills	1	2	3	4
i. Has a good sense of justice	1	2	3	4
j. Helps those less fortunate than he/she is	1	2	3	4
k. Ha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1	2	3	4
l. Enduring	1	2	3	4

Q14 If you could be born again, would you want to be born male or female ?

1. Male
2. Female
3. Does not matter
4. Don't know

Q15 Have you parents/guardians told you that you to be more masculine(or feminine) because you are a man(or a woman) ?

1. Very often
2. Sometimes
3. Rarely
4. Never

Q16a Male students in Japan's high schools, some say, seem to be discouraged and withering while female students are energetic and more self-confident these days. How often, if at all, do you find a similar tend in the U.S. ?

1. Very often
2. Sometimes
3. Rarely
4. Never

Q16b (If you answer "Very often" or "Sometimes") Why ?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Boys tend to be passive
2. Boys tend not to speak out
3. Boys tend not to take initiative
4. Boys don't seem cheerful
5. Boys tend to be too quiet
6. Boys don't try hard

7. Boys are wimps
8. Boys tend to obey their parents
9. Boys tend to obey their teachers
10. Boys are not vigorous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11. Boys tend not to be self-starters
12. Boys tend not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seriously
13. The media report only on female student

Q17a Have you ever confessed your love to someone of the opposite sex ?

1. Yes
2. No

Q17b (If answer "Yes") How have you confessed your love to him/her ?

1. By letter
2. By phone
3. By E-mail
4. Met him/her in person
5. Through a third party such as friend
6. Other means

Q18a Has someone of the opposite sex ever confessed his/her love to you ?

1. Yes
2. No

Q18b (If answer "Yes") How has he/she confessed his/her love to you ?

1. By letter
2. By phone
3. By E-mail
4. Met him/her in person
5. Through a third party such as friend
6. Other means

Q19 What do you think of the following statements ?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One should be chaste before marriage	1	2	3	4
b. A woman should quit her job and become a homemaker after marriage	1	2	3	4
c. A woman should quit her job and concentrate on raising her child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1	2	3	4
d. I want to value my own family more than my job	1	2	3	4
e. I want to value my hobby or lifestyle more than marriage or childrearing	1	2	3	4
f. It is necessary to be married to be fully accepted in society	1	2	3	4

g. there is no need to be married as long as one can make a living	1	2	3	4
h. To make a marriage work, both husband and wife should have patience	1	2	3	4
i. A woman should be and act female	1	2	3	4
j. A man should be and act male	1	2	3	4
k. A man should protect and cherish a woman	1	2	3	4
l. I am attracted to a man who perform well at work	1	2	3	4
m. I am attracted to a man who perform well at work	1	2	3	4

Q20 What kind of friends you find and easy to get along ? (Please circle all that apply)

1. Someone who states his/her opinion clearly
2. A good listener
3. A good student
4. Someone who is unique and stands out
5. Someone who share my hobby
6. Someone kind and gentle
7. Someone who cracks jokes often
8. A dependable person
9. A fashionable person
10. A cheerful and active person
11. A considerate person
12. Someone who takes care of others
13. Someone who has leadership skills
14. Someone with a good sense of justice
15. A responsible person
16. Someone who depends on me
17. A hard worker
18. A serious person

Q21 How do you associate with your friends ?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Try not to depend on each other too much	1	2	3	4
b. Help a friend even if I have to sacrifice my own interest	1	2	3	4
c. Respect each other's privacy	1	2	3	4
d. Confide in each other	1	2	3	4
e. Be considerate to what the other has in mind	1	2	3	4

Q22 What do you think of the following types of behavior by high school students ?

	Unacceptable	Up to the individual	OK	Commendable
a. Talk loudly in public transportation	1	2	3	4
b. Talk on cellular phone in public transportation	1	2	3	4
c. Put on makeup in public	1	2	3	4
d. Not give up seat for the elderly in public transportation	1	2	3	4
e. Sit on the floor of a train or street	1	2	3	4
f. Exchange E-mail message while in class	1	2	3	4
g. Talk back to a teacher	1	2	3	4
h. Talk back to a parent	1	2	3	4
i. Access a web site to meet someone for sexual purpose	1	2	3	4
j. Wear something radical	1	2	3	4
k. Use drugs	1	2	3	4
l. Cut school	1	2	3	4
m. Shoplifting	1	2	3	4
n. Engage in sexual acts for money	1	2	3	4

Q23 What do you think of this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a. I don't want to attain a higher rank at work as it means more responsibility	1	2	3	4
b. I want to set up my own business in the future	1	2	3	4
c. I want to try something I like no matter how difficult it can be	1	2	3	4
d. I want to be free and do not want to be a regular employee at an organization/company	1	2	3	4
e. I want to be a leader in my class	1	2	3	4
f. I want to keep up with the latest fad	1	2	3	4
g. I want to live a society without cutthroat competition	1	2	3	4
h. I just want to make a living and otherwise relax	1	2	3	4
i. In general I am happy with who and what I am	1	2	3	4
j. I give up easily when I face a problem	1	2	3	4
k. I would like to stand out among my peers in some way	1	2	3	4
l. I am a competitive person	1	2	3	4

부록 2: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문 1> 당신의 성별은 ?					
1. 남자		48.0	45.8	44.0	47.7
2. 여자		52.0	54.2	56.0	52.3
<문 2> 몇학년입니까 ?					
1. 1학년		39.5	32.7	31.0	40.5
2. 2학년		45.9	33.7	36.3	30.4
3. 3학년		14.6	33.7	32.8	29.1
<문 3> 재학중인 학교는 국·공립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					
1. 국립 또는 공립학교		79.4	98.9	90.8	76.6
2. 사립학교		20.6	1.1	9.3	23.4
<문 4> 학교의 계열은 인문계입니까, 아니면 실업계입니까 ?					
1. 인문계 고등학교		75.4	77.6	65.3	99.0
2. 실업계 고등학교		24.6	22.4	34.8	1.0
<문 5> 당신의 과목별 성적은 학급내에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국어	1.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29.7	34.9	29.6	42.2
	2. 중간수준	50.4	54.2	38.4	54.4
	3.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19.9	10.9	32.0	3.4
2) 수학	1.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25.1	29.2	26.6	42.2
	2. 중간수준	33.6	46.1	27.5	50.1
	3.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41.3	24.7	45.8	7.6
3) 외국어	1.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28.8	32.8	22.4	36.1
	2. 중간수준	41.0	44.0	35.5	53.8
	3.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30.2	23.2	42.2	10.0
4) 전과목 평균	1.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27.0	30.8	27.8	42.0
	2. 중간수준	47.7	59.0	38.9	56.5
	3.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25.4	10.2	33.3	1.5
<문 6> 당신은 학교내에서 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다음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0표해 주십시오.					
1. 적극적으로 스포츠관련 클럽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3.4	50.7	50.2	66.1
2. 적극적인 아니지만, 스포츠관련 클럽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2.5	34.1	15.1	7.6
3.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계통(학술/문화/예술/취미 등)의 클럽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31.4	38.1	23.7	45.1
4. 적극적인 아니지만, 문화예술계통(학술/문화/예술/취미 등)의 클럽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45.8	28.7	15.1	7.1
5. 클럽활동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5.4	4.5	6.8	1.6
6. 어떤 클럽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22.3	18.1	26.9	29.6
<문 7> 당신의 학급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1. 거의 또는 전부가 남자		35.1	3.4	5.8	0.8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 남자가 3분의 2정도		11.3	17.9	10.3	7.1
3. 남자·여자가 같은 비율		14.8	25.4	38.7	65.2
4. 남자가 3분의 1 정도		1.3	43.9	17.6	20.1
5. 거의 또는 전부가 여자		37.4	9.5	27.5	6.7
<문 8> 당신의 학급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0표해 주십시오.					
1. 농담을 잘 한다		65.2	80.1	52.4	77.6
2. 공부를 잘 한다		22.2	47.1	17.9	32.0
3.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한다		26.8	53.6	32.4	48.2
4. 적극적(활동적)이다		58.8	45.2	35.8	19.3
5. 정의감이 강하다		20.9	35.5	12.6	15.1
6. 상냥하다		30.8	43.1	44.8	22.5
7. 약한 아이를 도와준다		13.0	49.0	11.7	14.4
8. 운동을 잘 한다		21.9	29.3	21.5	67.6
9. 선생님께 귀여움을 받는다		4.6	18.2	7.4	37.0
10. 개성적이다		45.9	37.5	48.4	49.4
11. 힘이 세다		11.1	10.2	6.7	40.6
12. 자기세계에만 몰입한다		6.0	6.0	4.1	4.4
13. 몰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		3.5	4.2	5.0	17.8
14. 선생님께 반항한다		4.7	5.2	6.3	20.9
15. 유행에 민감하다		10.6	11.5	17.4	70.9
<문 9> 당신의 학교 또는 학급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은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쪽이 맡고 있습니까?					
1) 학생위원장	1. 남학생	-	58.9	66.8	-
	2. 여학생	-	41.1	33.2	-
2) 학생회 회장	1. 남학생	64.5	44.2	39.3	51.6
	2. 여학생	35.5	55.8	60.7	48.4
3) 문화제, 축제 등의 학생 실행위원장	1. 남학생	61.3	56.0	59.9	26.3
	2. 여학생	38.7	44.0	40.1	73.8
4) 학급의 반장·실장	1. 남학생	63.1	23.6	75.8	58.3
	2. 여학생	36.9	76.4	24.2	41.7
5) 자신이 가입한 클럽의 리더	1. 남학생	61.9	29.6	72.0	48.2
	2. 여학생	38.1	70.4	28.0	51.8
<문 10> [남녀 혼성학급인 경우에만 응답] 당신의 학급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쪽이 많습니까?					
1)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12.0	18.9	11.6	8.2
	2. 여학생이 많다	40.8	27.7	20.2	51.2
	3. 단정하기 어렵다	47.2	53.4	68.3	40.6
2) 학급의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39.8	22.3	30.7	30.1
	2. 여학생이 많다	23.7	59.7	19.4	32.5
	3. 단정하기 어렵다	36.5	18.0	49.9	37.4
3) 학급내에서 인기있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34.1	33.1	33.1	35.0
	2. 여학생이 많다	1.6	21.6	10.3	24.9

		한국	중국	일본	미국
	3. 단정하기 어렵다	54.2	45.4	56.7	40.1
4) 선생님께 자주 반항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58.1	50.2	36.1	64.2
	2. 여학생이 많다	12.5	6.8	16.7	10.9
	3. 단정하기 어렵다	29.4	43.0	47.2	25.0
5) 스포츠 활동에 열심인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81.0	81.1	56.6	56.7
	2. 여학생이 많다	4.0	4.3	5.0	9.2
	3. 단정하기 어렵다	14.9	14.6	38.5	34.1
6) 문화활동에 열심인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10.4	19.9	7.3	6.1
	2. 여학생이 많다	41.0	50.4	42.6	48.4
	3. 단정하기 어렵다	48.6	29.7	50.1	45.6
7) 다른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9.2	12.4	5.1	3.4
	2. 여학생이 많다	36.8	48.8	37.9	65.6
	3. 단정하기 어렵다	54.0	38.8	57.0	31.0
8)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16.9	15.1	11.4	5.9
	2. 여학생이 많다	40.7	44.1	42.2	56.3
	3. 단정하기 어렵다	42.3	40.8	46.4	37.8
9) 정치·경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26.1	40.0	15.0	33.3
	2. 여학생이 많다	9.6	13.0	4.6	17.8
	3. 단정하기 어렵다	64.3	47.1	80.4	48.9
10) 수업중에 자주 손을 들고 질문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23.3	42.1	26.4	16.9
	2. 여학생이 많다	20.5	26.3	15.4	42.6
	3. 단정하기 어렵다	56.2	31.6	58.3	40.4
11) 교착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44.2	44.3	18.4	62.2
	2. 여학생이 많다	8.8	11.9	19.7	4.4
	3. 단정하기 어렵다	47.0	43.8	61.9	33.4
12) 유행에 민감한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12.5	11.6	6.5	7.7
	2. 여학생이 많다	37.5	43.7	37.8	61.2
	3. 단정하기 어렵다	50.0	44.7	55.7	31.1
13) 싸움을 잘 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67.9	20.0	41.9	65.1
	2. 여학생이 많다	4.8	31.2	5.5	5.8
	3. 단정하기 어렵다	27.3	48.8	52.6	29.1
14)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20.2	31.7	13.3	17.3
	2. 여학생이 많다	10.1	13.9	6.6	32.9
	3. 단정하기 어렵다	69.6	54.4	80.1	49.8
15) 학급활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	1. 남학생이 많다	40.2	22.5	29.7	21.0
	2. 여학생이 많다	4.4	14.4	4.9	12.3
	3. 단정하기 어렵다	55.4	63.1	65.3	66.7
<문 11> 학교생활에서 큰 만족감이나 보람을 느낄 때는 다음 중 어떤 때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0표해 주십시오.					
1.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을 때		39.6	72.5	30.1	79.9
2.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6.0	28.7	2.5	8.3

		한국	중국	일본	미국
3.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58.0	68.2	76.3	89.9
4. 특별활동(또는 클럽활동)을 하고 있을 때		20.1	21.9	39.5	-
5.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		39.3	43.9	7.5	40.0
6.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72.6	70.4	32.1	83.1
7. 문화제(축제), 운동회를 할 때		34.5	22.4	42.6	-
8. 공부에 몰두해 있을 때		29.0	38.0	7.9	25.7
9. 자기 개성이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		39.9	61.7	38.3	65.3
10. 학문(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31.3	58.3	14.9	21.2
<문 12> 당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남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건강하다	1. 남성적이다	45.5	56.5	27.8	55.6
	2. 여성적이다	6.6	14.5	14.9	8.0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2.7	21.9	51.2	12.0
	4. 잘 모르겠다	5.2	7.2	6.1	24.4
2) 상냥하다	1. 남성적이다	9.2	13.2	8.0	3.8
	2. 여성적이다	57.3	61.9	53.1	85.6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7.3	17.5	35.0	6.5
	4. 잘 모르겠다	6.1	7.3	3.9	4.2
3) 심술궂다	1. 남성적이다	47.0	31.7	20.9	48.1
	2. 여성적이다	8.8	10.3	32.8	13.7
	3. 구별이 불가능하다	33.9	25.2	35.1	14.1
	4. 잘 모르겠다	10.3	32.8	11.3	24.1
4) 정열적이다	1. 남성적이다	40.8	29.0	44.1	4.6
	2. 여성적이다	11.1	36.9	13.9	74.4
	3. 구별이 불가능하다	38.2	26.8	31.6	10.6
	4. 잘 모르겠다	9.9	7.4	10.4	10.4
5) 귀엽다	1. 남성적이다	7.6	10.0	2.5	16.2
	2. 여성적이다	55.6	74.1	84.6	64.6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8.9	11.2	9.1	11.0
	4. 잘 모르겠다	7.9	4.8	3.8	8.2
6) 농담을 잘한다	1. 남성적이다	36.7	75.6	55.2	47.8
	2. 여성적이다	9.7	7.3	6.2	11.6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6.7	12.8	31.9	22.4
	4. 잘 모르겠다	7.0	4.3	6.8	18.2
7) 불량스럽다	1. 남성적이다	35.4	35.3	52.1	43.9
	2. 여성적이다	6.6	7.4	6.1	7.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5.5	21.5	33.7	20.8
	4. 잘 모르겠다	12.4	35.8	8.0	27.5
8) 명랑하다	1. 남성적이다	15.4	23.9	14.0	4.5
	2. 여성적이다	40.0	44.6	37.1	76.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38.4	26.3	35.6	9.9
	4. 잘 모르겠다	6.2	5.2	13.3	8.7

		한국	중국	일본	미국
9) 책임감이 강하다	1. 남성적이다	39.6	43.2	29.5	11.7
	2. 여성적이다	11.9	26.8	20.0	57.8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1.3	23.5	42.4	18.2
	4. 잘 모르겠다	7.2	6.5	8.0	12.3
10) 투지가 있다	1. 남성적이다	55.4	20.4	20.6	24.3
	2. 여성적이다	7.2	44.7	26.3	34.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30.8	28.3	47.5	21.6
	4. 잘 모르겠다	6.6	6.6	5.6	19.1
11) 분명하게 주장한다	1. 남성적이다	27.1	48.0	22.8	32.0
	2. 여성적이다	15.6	15.8	27.3	30.5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9.4	24.3	43.3	17.9
	4. 잘 모르겠다	8.0	12.0	6.6	19.7
12) 번덕스럽다	1. 남성적이다	15.0	34.6	16.8	12.3
	2. 여성적이다	40.4	19.4	40.9	34.0
	3. 구별이 불가능하다	34.0	24.6	32.7	16.3
	4. 잘 모르겠다	10.6	21.5	9.5	37.5
13) 제멋대로이다	1. 남성적이다	26.6	9.6	4.3	29.1
	2. 여성적이다	15.7	63.8	66.1	34.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6.5	14.6	22.9	20.5
	4. 잘 모르겠다	11.2	12.0	6.8	15.5
14) 수다스럽다	1. 남성적이다	9.2	9.2	4.3	12.4
	2. 여성적이다	59.3	58.6	72.3	66.3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6.5	16.4	18.4	13.5
	4. 잘 모르겠다	5.1	15.8	5.0	7.8
15) 믿음직스럽다	1. 남성적이다	58.0	51.2	55.0	17.3
	2. 여성적이다	8.1	17.9	7.3	45.8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8.0	21.4	31.6	20.7
	4. 잘 모르겠다	5.9	9.6	6.1	16.3
16) 적극적이다	1. 남성적이다	30.3	42.1	30.0	28.1
	2. 여성적이다	14.7	22.6	17.6	21.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8.9	26.5	45.9	18.0
	4. 잘 모르겠다	6.1	8.8	6.4	31.9
17) 양전하다	1. 남성적이다	10.2	33.2	7.1	17.6
	2. 여성적이다	52.5	27.4	51.6	35.8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9.7	27.3	33.5	28.9
	4. 잘 모르겠다	7.6	12.1	7.8	17.7
18) 리더십이 있다	1. 남성적이다	37.5	38.5	41.0	33.1
	2. 여성적이다	9.8	28.4	11.9	24.5
	3. 구별이 불가능하다	42.8	24.7	40.4	21.6
	4. 잘 모르겠다	9.9	8.4	6.6	20.8
19) 난폭하다	1. 남성적이다	59.0	51.1	66.0	71.3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 여성적이다	6.7	12.8	4.3	4.9
	3. 구별이 불가능하다	24.2	16.9	22.1	13.3
	4. 잘 모르겠다	10.1	19.2	7.6	10.5
20) 창조적이다	1. 남성적이다	16.1	47.7	13.9	12.6
	2. 여성적이다	21.0	15.0	17.8	51.2
	3. 구별이 불가능하다	50.5	25.9	54.8	19.3
	4. 잘 모르겠다	12.4	11.5	13.5	16.9

<문 13> 당신은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이 “강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까 ? 다음 각각의 특징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적극적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2.4	3.3	1.5
	2. 별로 그렇지 않다	15.3	7.0	13.2	2.3
	3. 대체로 그렇다	46.6	41.1	41.9	40.0
	4. 매우 그렇다	36.8	49.6	41.7	56.2
2)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3.9	2.0	0.5
	2. 별로 그렇지 않다	14.6	21.4	8.3	4.3
	3. 대체로 그렇다	37.1	41.8	27.4	42.7
	4. 매우 그렇다	46.9	32.8	62.4	52.5
3) 용기가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1.1	1.9	1.5
	2. 별로 그렇지 않다	14.0	5.2	8.9	11.6
	3. 대체로 그렇다	32.8	33.9	26.8	46.3
	4. 매우 그렇다	52.0	59.8	62.4	40.7
4) 모험심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	2.6	3.8	2.3
	2. 별로 그렇지 않다	21.2	15.0	27.2	18.6
	3. 대체로 그렇다	37.8	37.7	34.1	46.0
	4. 매우 그렇다	38.1	44.7	34.9	33.1
5) 믿음직스럽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8	2.2	2.9	1.2
	2. 별로 그렇지 않다	17.9	7.0	12.2	5.0
	3. 대체로 그렇다	35.9	32.6	28.6	32.4
	4. 매우 그렇다	44.4	58.2	56.3	61.4
6) 상냥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0	3.9	5.4	4.4
	2. 별로 그렇지 않다	38.2	11.2	22.4	17.2
	3. 대체로 그렇다	35.8	35.3	31.6	45.3
	4. 매우 그렇다	18.0	49.5	40.6	33.1
7) 불량스럽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1.9	54.2	31.4	35.2
	2. 별로 그렇지 않다	29.8	25.0	37.9	41.6
	3. 대체로 그렇다	11.0	10.7	17.0	14.6
	4. 매우 그렇다	7.3	10.0	13.6	8.6
8) 리더십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6	3.5	3.4	1.4
	2. 별로 그렇지 않다	16.6	6.0	12.0	4.4
	3. 대체로 그렇다	33.6	35.5	31.1	35.8
	4. 매우 그렇다	46.1	54.9	53.5	58.5

		한국	중국	일본	미국
9) 정의감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6 16.5 34.6 47.4	1.7 6.6 36.8 54.9	3.8 14.0 31.2 51.1	2.5 9.5 45.5 42.6
10) 악한 사람을 돕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2.2 19.6 37.4 40.8	1.8 4.0 36.9 57.3	3.1 18.4 33.4 45.0	3.2 12.7 40.1 44.0
11) 책임감이 강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9 13.3 29.2 55.7	1.6 3.7 31.2 63.5	2.9 11.5 29.4 56.1	1.5 2.7 28.5 67.3
12) 인내력이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3.5 15.7 30.4 50.5	3.9 13.7 38.8 43.5	3.9 15.7 30.4 49.9	2.2 6.5 45.5 45.8
<문 14>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쪽으로 태어났으면 합니까?					
1.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33.9	47.6	41.3	39.7
2.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28.6	25.4	25.8	36.3
3. 어느쪽이든 상관 없다		31.4	22.6	26.4	14.6
4. 잘 모르겠다		6.2	4.5	6.4	9.4
<문 15> 부모님으로부터 “남자답게”(여학생은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8.5	24.0	33.8	67.9
2. 별로 없다		26.0	23.7	31.5	13.2
3. 가끔 있다		32.8	36.8	22.4	12.2
4. 자주 있다		12.7	15.5	12.4	6.7
<문 16> “요즘 남자들이 약해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신이 중학생·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 현재의 생각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0.3 38.3 37.9 13.5	9.2 34.8 38.1 17.9	16.3 46.4 29.0 8.2	12.0 32.0 46.2 9.8
2) 중학생 때의 생각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1.6 56.0 26.9 5.5	12.4 43.5 33.0 11.2	20.2 47.6 24.1 8.1	- - - -
3) 초등학생 때의 생각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대체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28.3 42.8 17.6 11.2	23.0 42.8 23.4 10.7	27.1 42.2 20.9 9.8	- -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문 16-1> [현재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만(<문16-1>)의 1, 2 응답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모두 0표해 주십시오.					
1.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46.9	36.3	41.3	38.1
2. 자기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34.2	38.0	47.7	38.3
3. 행동력이 없기 때문에		35.0	36.0	38.8	41.2
4.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여서		28.7	23.2	18.5	41.7
5. 양전하기 때문에		13.8	18.5	26.7	20.6
6. 투지가 없기 때문에		34.0	42.3	26.7	57.5
7. 패기가 없기 때문에		42.7	24.4	17.4	16.5
8.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기 때문에		15.1	7.1	6.0	9.9
9.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기 때문에		7.6	8.1	6.0	8.4
10. 활동에 활력이 없기 때문에		23.1	27.2	12.5	18.4
11. 무기력하기 때문에		24.4	28.2	28.8	39.9
12.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53.3	38.5	24.2	72.3
13. 마스크에서 여학생들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9.6	36.3	5.0	10.0
<문 17> 당신은 지금까지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46.9	29.7	50.3	61.4
2. 없다		53.1	70.3	49.7	38.6
<문 17-1>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어떤 방식으로 고백했습니까?(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에)					
1. 편지로		16.3	18.8	-	3.7
2. 전화로		16.1	17.5	-	6.8
3. 이메일로		11.6	6.4	-	2.3
4.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37.4	38.5	-	62.3
5. 친구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8.5	14.4	-	1.7
6. 기타		10.1	4.4	-	23.1
<문 18> 당신은 지금까지 이성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64.5	51.6	65.9	71.8
2. 없다		35.5	48.4	34.1	28.2
<문 18-1>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어떤 방식으로 고백을 받았습니까?(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에)					
1. 편지로		14.8	26.0	-	3.6
2. 전화로		21.1	20.8	-	7.2
3. 이메일로		11.5	4.8	-	3.0
4.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30.4	32.2	-	58.9
5. 친구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13.5	13.2	-	4.2
6. 기타		8.8	3.2	-	23.0
<문 19>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6	7.6	21.6	12.1
	2. 별로 그렇지 않다	19.7	16.3	44.2	31.0
	3. 대체로 그렇다	38.8	33.4	25.5	35.9
	4. 매우 그렇다	36.0	42.8	8.8	21.0
2) 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1. 전혀 그렇지 않다	56.7	37.4	43.8	53.2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4.0	39.3	45.1	37.5
	3. 대체로 그렇다	6.3	15.8	8.1	5.7
	4. 매우 그렇다	3.0	7.4	3.0	3.7
3)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면 일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5.0	42.4	30.6	25.7
	2. 별로 그렇지 않다	34.1	39.0	42.2	42.6
	3. 대체로 그렇다	16.1	11.1	21.8	23.7
	4. 매우 그렇다	4.9	7.5	5.4	8.0
4) 일보다 가정을 소중히 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0	13.9	3.4	2.2
	2. 별로 그렇지 않다	23.2	31.6	13.7	8.5
	3. 대체로 그렇다	49.0	36.2	53.5	46.0
	4. 매우 그렇다	22.8	18.4	29.4	43.3
5) 앞으로 결혼이나 육아보다는 자신의 취미와 생활을 소중히 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2	8.4	9.1	34.3
	2. 별로 그렇지 않다	38.9	29.9	50.4	50.2
	3. 대체로 그렇다	36.6	38.3	28.1	10.3
	4. 매우 그렇다	18.3	23.4	12.5	5.2
6)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역시 결혼할 필요가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9.5	14.7	32.5	31.6
	2. 별로 그렇지 않다	43.8	33.7	49.6	48.0
	3. 대체로 그렇다	26.5	34.8	14.1	14.9
	4. 매우 그렇다	10.2	16.8	3.8	5.4
7) 혼자서 살 수 있으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8	15.8	7.3	11.8
	2. 별로 그렇지 않다	29.0	32.0	24.5	36.6
	3. 대체로 그렇다	34.0	33.0	46.9	39.1
	4. 매우 그렇다	22.2	19.2	21.3	12.5
8)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6	9.9	7.5	0.5
	2. 별로 그렇지 않다	3.8	17.5	31.7	3.9
	3. 대체로 그렇다	38.7	38.0	41.4	33.5
	4. 매우 그렇다	56.0	34.5	19.4	62.1
9)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9	5.9	26.2	6.8
	2. 별로 그렇지 않다	37.2	21.4	45.1	30.3
	3. 대체로 그렇다	31.2	38.0	23.0	44.2
	4. 매우 그렇다	15.8	34.7	5.8	18.7
10)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4.3	4.1	22.0	5.0
	2. 별로 그렇지 않다	31.8	13.3	35.0	26.4
	3. 대체로 그렇다	32.9	37.0	30.0	45.9
	4. 매우 그렇다	21.0	45.6	13.0	22.7
11) 남자는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4	3.7	10.4	1.2
	2. 별로 그렇지 않다	21.0	10.8	19.4	4.3
	3. 대체로 그렇다	39.0	33.3	39.1	37.8
	4. 매우 그렇다	31.6	52.2	31.1	56.7
12) 일을 잘 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4	6.8	9.4	30.5
	2. 별로 그렇지 않다	18.5	17.9	25.0	11.8

		한국	중국	일본	미국
	3. 대체로 그렇다	43.1	38.6	39.2	37.1
	4. 매우 그렇다	31.1	36.8	26.4	20.6
13) 일을 잘 하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2	11.4	8.0	26.8
	2. 별로 그렇지 않다	18.5	31.5	29.2	13.2
	3. 대체로 그렇다	45.3	35.1	37.6	36.7
	4. 매우 그렇다	31.0	22.1	25.2	23.4
14) 결혼한다면,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	32.8	9.4	-
	2. 별로 그렇지 않다	21.4	34.1	32.0	-
	3. 대체로 그렇다	37.3	19.9	32.5	-
	4. 매우 그렇다	37.0	13.2	26.2	-
<문 20> 당신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떤 타입의 사람과 쉽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모두 0표해 주십시오.					
1.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28.5	50.5	40.5	57.8
2.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63.7	58.8	59.2	76.8
3. 공부를 잘하는 사람		13.2	38.4	10.8	40.6
4. 개성이 있는 사람		30.3	47.9	45.6	61.3
5.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62.9	67.8	64.4	71.2
6. 상냥하게 대해 주는 사람		54.1	52.0	52.6	61.6
7. 농담을 잘 하는 사람		49.6	56.6	57.3	80.0
8. 믿을 수 있는 사람		78.6	62.6	56.9	75.4
9. 유행에 민감한 사람		11.1	22.8	24.4	34.6
10. 활발하고 명랑한 사람		66.8	68.8	63.6	74.7
11. 주위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		66.4	22.4	42.7	72.2
12. 다른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		37.5	48.1	25.8	57.4
13. 상대방을 리드해 주는 사람		28.0	21.7	20.6	36.1
14. 정의감이 있는 사람		27.6	50.6	17.8	43.4
15. 책임감이 강한 사람		40.1	54.4	25.9	70.6
16. 자신의 투정을 잘 받아 주는 사람		31.0	15.7	12.8	40.0
17. 노력하는 사람		35.6	35.2	26.5	48.8
18. 성실한 사람		40.2	44.6	11.2	24.4
<문 21> 당신은 친구들과 어떻게 사귀고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지 않게 행동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6	22.3	3.0	8.3
	2. 별로 그렇지 않다	17.6	48.0	21.8	39.8
	3. 대체로 그렇다	66.2	24.0	63.5	45.7
	4. 매우 그렇다	14.6	5.8	11.7	6.2
2)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8	4.4	12.3	0.9
	2. 별로 그렇지 않다	46.3	28.2	52.3	10.9
	3. 대체로 그렇다	39.7	50.8	29.1	60.5
	4. 매우 그렇다	8.2	16.6	6.3	27.7
3) 서로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개입하지 않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4	8.8	8.0	1.3
	2. 별로 그렇지 않다	33.7	27.0	43.3	4.1
	3. 대체로 그렇다	50.6	41.4	39.9	57.4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 매우 그렇다	11.4	22.9	8.7	37.2
4)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지낸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4	2.2	3.6	1.3
	2. 별로 그렇지 않다	16.4	10.4	14.9	9.0
	3. 대체로 그렇다	51.8	45.7	50.3	51.4
	4. 매우 그렇다	29.4	41.7	31.2	38.3
5)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존중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	4.6	2.4	0.8
	2. 별로 그렇지 않다	9.3	13.6	13.3	3.1
	3. 대체로 그렇다	65.3	50.2	59.1	51.5
	4. 매우 그렇다	23.9	31.7	25.2	44.6
<문 22> 고등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데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철(또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76.0	52.4	77.1	21.5
	2. 본인의 자유이다	13.9	31.3	18.4	47.7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9.7	13.6	4.1	27.4
	4. 좋은 행동이다	0.4	2.7	0.4	3.4
2) 전철(또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19.9	24.2	54.0	7.8
	2. 본인의 자유이다	51.5	43.5	31.0	34.3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28.1	27.8	14.4	47.3
	4. 좋은 행동이다	0.4	4.5	0.6	10.7
3) 전철(또는 버스) 안에서 화장을 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27.9	-	42.9	8.6
	2. 본인의 자유이다	54.2	-	47.0	42.6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7.5	-	9.5	39.9
	4. 좋은 행동이다	0.5	-	0.6	8.9
4) 전철(또는 버스)에서 노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69.7	68.8	66.3	63.3
	2. 본인의 자유이다	15.9	21.1	28.8	25.5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3.3	4.9	4.6	5.5
	4. 좋은 행동이다	11.1	5.2	0.3	5.7
5) 길바닥이나 전철(또는 버스)바닥에 앉아있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46.7	-	58.9	19.7
	2. 본인의 자유이다	38.5	-	33.7	52.1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3.7	-	7.0	22.5
	4. 좋은 행동이다	1.1	-	0.4	5.7
6) 수업 중에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64.8	65.0	40.4	31.0
	2. 본인의 자유이다	23.9	24.1	49.9	39.7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9.8	8.8	8.4	23.7
	4. 좋은 행동이다	1.5	2.1	1.4	5.6
7) 선생님께 반항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82.0	69.3	24.3	57.2
	2. 본인의 자유이다	11.0	18.4	51.4	31.6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5.4	10.8	21.3	8.2
	4. 좋은 행동이다	1.7	1.5	3.0	3.0
8) 부모님께 반항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84.8	70.9	20.3	54.2
	2. 본인의 자유이다	9.0	18.9	53.7	33.5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5.4	8.6	23.0	9.0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 좋은 행동이다	0.8	1.5	3.0	3.4
9) 인터넷의 이성교제 사이트를 이용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24.9	46.3	47.2	50.6
	2. 본인의 자유이다	59.8	39.8	46.2	40.4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2.6	11.1	4.9	5.5
	4. 좋은 행동이다	2.7	2.9	1.8	3.5
10) 과격한 옷차림(패션)을 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13.6	39.3	9.5	11.3
	2. 본인의 자유이다	72.8	46.8	79.7	56.7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1.7	10.8	8.0	21.3
	4. 좋은 행동이다	1.9	3.1	2.8	10.7
11) 각성제나 마약을 복용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88.9	89.4	83.5	51.0
	2. 본인의 자유이다	9.0	7.6	14.8	40.7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3	1.7	0.5	4.6
	4. 좋은 행동이다	0.7	1.3	1.3	3.6
12) 학교를 빼먹고 결석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76.2	80.1	26.7	41.9
	2. 본인의 자유이다	20.0	15.8	68.3	49.2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3.1	3.3	3.8	5.4
	4. 좋은 행동이다	0.7	0.8	1.3	3.5
13)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91.7	92.6	84.9	66.5
	2. 본인의 자유이다	6.0	5.4	13.0	28.1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2	1.0	0.9	2.8
	4. 좋은 행동이다	1.0	1.0	1.3	2.6
14) 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한다	1. 좋지 못한 행동이다	86.8	91.0	72.5	62.7
	2. 본인의 자유이다	9.5	6.4	25.5	30.5
	3. 나쁜 행동은 아니다	1.7	1.1	1.0	2.5
	4. 좋은 행동이다	2.1	1.5	1.0	4.4
<문 23>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싫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5.0	17.3	8.9	28.1
	2. 별로 그렇지 않다	42.5	38.0	36.0	51.6
	3. 대체로 그렇다	32.3	30.8	43.0	14.8
	4. 매우 그렇다	10.2	13.8	12.0	5.5
2) 앞으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6	4.3	30.2	4.1
	2. 별로 그렇지 않다	30.8	22.7	42.7	24.9
	3. 대체로 그렇다	31.9	38.6	17.0	47.0
	4. 매우 그렇다	31.7	34.5	10.0	24.0
3)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1	1.5	4.0	1.2
	2. 별로 그렇지 않다	14.6	6.6	23.2	6.9
	3. 대체로 그렇다	40.7	39.1	48.8	49.4
	4. 매우 그렇다	43.6	52.8	24.0	42.6
4) 앞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정식으로 취직은 하고 싶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0.6	6.4	35.1	5.0
	2. 별로 그렇지 않다	50.4	22.5	48.4	31.7
	3. 대체로 그렇다	17.4	32.9	12.8	40.5

		한국	중국	일본	미국
	4. 매우 그렇다	11.5	38.2	3.8	22.7
5) 학급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4	19.8	31.2	4.1
	2. 별로 그렇지 않다	53.2	38.3	55.0	26.8
	3. 대체로 그렇다	27.0	27.8	11.2	42.4
	4. 매우 그렇다	12.5	14.0	2.6	26.7
6)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	6.4	11.4	12.1
	2. 별로 그렇지 않다	17.9	15.8	27.2	30.7
	3. 대체로 그렇다	50.2	47.2	45.8	42.6
	4. 매우 그렇다	29.0	30.6	15.6	14.6
7)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6.5	21.9	9.7	5.5
	2. 별로 그렇지 않다	35.0	36.9	30.9	26.1
	3. 대체로 그렇다	30.2	23.0	36.7	50.0
	4. 매우 그렇다	28.2	18.1	22.7	18.5
8) 먹고살만한 수입이 있으면 한가롭게 살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4.6	22.9	6.4	3.5
	2. 별로 그렇지 않다	15.8	36.0	20.8	17.1
	3. 대체로 그렇다	34.6	26.3	39.1	51.1
	4. 매우 그렇다	45.0	14.8	33.6	28.3
9)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2.5	12.4	17.9	2.3
	2. 별로 그렇지 않다	40.1	29.5	46.7	8.2
	3. 대체로 그렇다	37.9	43.8	28.1	46.2
	4. 매우 그렇다	9.4	14.3	7.3	43.3
10)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곧 체념해 버리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1.0	31.3	10.6	28.2
	2. 별로 그렇지 않다	49.1	45.0	47.3	55.4
	3. 대체로 그렇다	33.3	16.8	33.7	12.4
	4. 매우 그렇다	6.5	6.8	8.4	4.0
11)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8.1	10.3	15.2	1.7
	2. 별로 그렇지 않다	43.6	30.7	52.0	13.1
	3. 대체로 그렇다	37.4	36.1	25.2	53.9
	4. 매우 그렇다	10.9	22.9	7.6	31.3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8	2.9	3.6	4.3
	2. 별로 그렇지 않다	21.6	8.3	17.2	16.3
	3. 대체로 그렇다	50.3	44.2	46.0	43.4
	4. 매우 그렇다	25.3	44.6	33.2	35.9

연구보고 03 - R 28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 조사
- 한·중·일·미 4개국 비교 연구 -

인 쇄	2003년 12월 26일
발 행	2003년 12월 27일
발 행 인	권 이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유성인쇄공사 전화 02-2265-5540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2188-8844(자료실)

ISBN 89-7816-498-6

